

돈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때

일론 머스크가 말하지 않는 역설

Ver. 5.3

2026. 2.

전 하 진

목차

[프롤로그] 돈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때 4

[제1장] 돈이 사라진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9

- 1. 깨져버린 약속: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환상 9
- 2. 머니로직의 파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생존 주권 10
- 3. 가짜 풍요에 대한 경고: 일론 머스크의 예언이 감춘 미싱 링크 13
- 4. 새로운 인류의 등장: 살림가(Salimist) 15
- 5. 대전환: 국가와 기업, '공급자'에서 '살림 파트너'로 18

[제2장] 내 안의 혁명: 돈의 종속을 끊는 무기, SERA 22

- 1. 행복을 유예하지 마라: 은행가와 어부의 대화 22
- 2.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라: 살림가가 되라 23
- 3. SERA: 나를 지키는 4가지 힘 25
 - 1) Story (스토리): 위기를 해석하고 희망을 설계하라 25
 - 2) Empathy (공감): 고통을 연결하는 접착제 27
 - 3) Resilience (회복탄력성): 꺾이지 않는 유연함 28
 - 4) Achievement (성취): 성공 프레임의 파괴, 그리고 일상의 충만 29
- 4. SERA의 나침반 ESGG과 선조들의 지혜 35

[제3장] 가장 완벽한 안전판: 살림셀(Salim Cell) 38

- 1. 살림셀(Salim Cell): 미래의 베이스캠프 38
- 2. 제로 베이직(Zero Basic): 월급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물리적 토대 41
- 3. 어반 베이직(Urban Basic): 숲속에서 실리콘밸리와 일하는 법 43
- 4. 컬처 베이직(Culture Basic): '살림가(Salimist)의 연대'가 온다 46
- 5. 다양한 살림셀의 가능성 49
- 6. 새로운 사회계약: 정부, 기업 그리고 살림셀 51

[제4장] 생존 주권을 되찾는 20일의 마이크로 실험 54

- 당신은 비용입니까, 우주의 서사입니까? 54

1주차 Story (스토리): 나를 가둔 프레임을 깨고 생태계와 조우하기.....	55
2주차 Empathy (공감): 파트너가 아닌 동료라는 각성.....	56
3주차 Resilience (회복탄력성): 결핍을 즐기는 유연함.....	57
4주차 Achievement (성취): 소유의 기쁨에서 존재의 충만으로.....	58
[제5장] 새로운 부의 탄생: 살림자본주의.....	62
1. Deep Job: AI가 대체할 수 없는 가치 노동의 시작.....	62
2. 머니로직이 외면했던 괴짜들, 미래의 구원자가 되다.....	69
3. 살림자본주의, 자본의 욕망을 문명의 동력으로 전환하다.....	72
4. 살림가(Salimist)의 탄생과 윤리적 풍요의 시대.....	75
5. K-문명의 대전환, 대한민국이 살림셀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	78
[부록] Deep Job 실천 가이드.....	86
[용어 해설].....	90

[프롤로그] 돈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때

- ✓ 이 책은 “돈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돈이 무력해지는 순간을 상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 ✓ 만약 전기, 통신, 금융 시스템이 멈춘다면 당신의 자산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 ✓ 우리가 믿어온 부의 정의는 과연 생존을 보장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0'이 되는 날, 당신은 누구입니까?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지금 불안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아껴서 적금을 붓고, 무리해서 아파트를 샀는데도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돈'이라는 신(God)이, 실은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끊기고, 당신의 아파트 값이 곤두박질 치는 바로 그날, 당신을 지켜줄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당신의 '진짜 잔고'를 확인하려 가봅시다.

2030년 1월 20일, 두 개의 밤(Night)

#1. 오후 7시, 서울 강남의 A 펜트하우스: "100억짜리 감옥"

모든 것이 멈춘 지 벌써 5일이 지났다. 사상 유례없는 '북극발 슈퍼 한파'와 폭설이 대한민국을 덮쳤고, 전력 수요 폭증을 견디지 못한 국가 전력망이 블랙아웃을 일으켰다.

100억 원을 호가하는 펜트하우스의 '스마트 홈 시스템'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지하에 있는 비상 발전기는 하루를 못 버티고 멈췄다. 도로가 눈에 갇혀 급유차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첨단이라 자랑하던 전자식 보안 시스템, 자동 환기 장치, 그리고 40층까지 물을 쏘아 올리던 부스터 펌프가 모두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

2030년 1월 24일 정오. 김철수(52) 씨는 어두컴컴한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냉기를 참아가며 버티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비상 상황이라 딱히 피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3,000만 원짜리 빌트인 냉장고는 이제 고가 식재료들의 무덤이 되었다. 1등급 한우와 신선한 해산물들이 녹아내려 핏물과 섞인 채 썩어가고 있었다. 그나마 겨울이라 그 시간을 좀 연장하고 있을 뿐이었다.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가족들은 40층을 오르내리면서 화장실을 찾아 다녔지만 수도물 공급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어디나 화장실은 악취와 배설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집 화장실도 이미 포화상태였다. 물이 없는 화장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어디라도 피신처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보지만 전기가 끊긴 상황이라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조차 불안한 상황이었다. 유일한 선택은 배낭 하나 들쳐메고 무작정 길을 나서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곳을 찾는 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돈은 있었다. 카드 한도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아줄 곳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다. 그제야 철수 씨는 깨달았다. **국가 시스템이 멈추면, 내 통장의 30 억은 그저 디지털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는 민우(27)는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였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민우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빠, 내 자리는 없어요. 이제 시가 저보다 훨씬 더 잘 한대요."

철수 씨는 가슴이 미어졌다. 돈만 있으면 아들에게 든든한 미래를 사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래서 민우에게 경쟁에서 이기는 법, 남보다 앞서가는 법만 가르쳤다. 하지만 세상의 작동 원리가 바뀌어 버렸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되자 민우는 갓난아기처럼 무력 해졌다.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빼앗길까 봐 무력감에 시달려 왔지만, 정작 시스템이 멈춘 순간 그는 밥 한 끼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창밖의 서울은 암흑 천지였다. 저 어둠보다 더 무서운 건, 고도화된 시스템에 생존의 모든 기능을 맡긴 채 '스스로 살아갈 능력'마저 거세당한 아들의 텅 빈 눈동자였다. 100 억짜리 집은 그들을 지켜주는 성이 아니라, 시스템이 꺼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남자를 가둔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다.

#2. 같은 시각, 충남 예산의 '오름마을': "일상이 장르가 되고, 삶이 돈이 되다"

바깥세상은 칠푼 같은 어둠과 공포에 잠겼지만, 오름마을의 밤은 딴 세상처럼 환했다.

마을 회관 격인 '살림 라운지'의 창문 너머로는 따스한 불빛과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국가 전력망은 무너졌지만, 이곳은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독립 전력망(Microgrid)으로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진 마을이어서 전력 공급에 이상이 없었던 것이다.

실내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갓 구운 빵 냄새와 커피 향이 감돌았다. 서울의 치열함은 먼 나라 이야기였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년 촌장 이영희(34) 씨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오름마을 주민들이 빗물을 정수해 커피를 내리고, 커피 찌꺼기로 버섯을 키우고, 서로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상을 토대로 살림거래소에 상장된 살림트로피가 국가 비상상황에 맞춰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그 가운데

ESG 기업의 투자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ESG 기업은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고장 난 자전거를 고치고, 저녁에는 이웃과 둘러앉아 시를 낭송한다. 바깥세상 사람들이 "돈이 안 된다"며 비웃던 그 소소한 일상들이 자산화 되고 있는 것이다.

마을의 최고령자 김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웃었다. "허허, 우리는 그저 재미있게 살았을 뿐인데, 그게 돈이 된다니 참 희한한 세상이야."

이곳에서 노동은 고역이 아니다.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돌보는 '**일상의 반복**'이 곧 **최고의 콘텐츠이자 자본**이 되었다. 기후위기, 양극화, AI 위협 등 다중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에너지 자립 마을이 각광받으며 벌어진 일이다.

(1)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풍경은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코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한쪽은 100 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갇힌 삶입니다. 겉보기에는 호화로운 부의 상징이지만, 전기요금 폭등과 공급망 불안으로 난방이 끊기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수많은 잡동사니만 주변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거대한 건물 안에서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값 비싼 펜트하우스가 오히려 감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와 양극화, 기술 위협 등 다중위기 상황에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상수로 여기던 단단한 하부구조의 붕괴를 어쩔 수 없이 변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수가 변수로 돌변하는 시대: 효율의 배신

우리는 수돗물과 전기, 인터넷을 공기처럼 당연한 '상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효율성만을 쫓으며 구축한 거대 인프라는 외부 충격 한 번에 무너지는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 **인프라의 붕괴:** 2021 년 텍사스 한파 사태는 시장 효율성을 위해 방한 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 중앙 집중형 전력망이 멈추며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 **공급망의 독:** 팬데믹 초기 미국이 겪은 마스크 대란은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긴 '효율성 중심 공급망'이 재난 앞에서 어떻게 독으로 돌아오는지 증명했습니다.

- **초연결의 역설:** 2017 년 워너크라이 바이러스 사태는 효율을 위해 하나로 묶인 표준 네트워크가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후 위기와 사이버 테러가 일상이 된 오늘날,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해 설정된 안전 한계치를 뛰어넘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 확보한 한계치는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자율과 분산'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일상의 붕괴 앞서 말한 대정전과 같은 급격한 파국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서서히 조여오는 일상의 붕괴'일지 모릅니다. 2029 년의 어느 날을 가정해 봅시다. 전기는 공급되지만 전기요금이 3 배가 올라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켜는 것이 공포가 됩니다. 마트에는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과 한 알에 2 만 원이 넘어, 들었다 놓기를 반복합니다. 급여는 그대로이고, 여전히 직장에는 출근하지만, 옆자리 동료가 AI 로 대체되어 해고되는 것을 보며, '다음은 내 차례'라는 불안에 떨며 하루를 보냅니다. 100 억 펜트하우스가 물리적 감옥이라면, 이러한 '고물가·고금리·고용불안'의 3 중고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어쩌면 가장 잔인한 일상의 붕괴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이겠지요. 평생을 바쳐온 직장에서 밀려나는 순간, 머릿속에는 오직 절망의 서사만이 가득 찹니다. "나는 망했다. 이제 수입이 끊기면 저 막대한 대출금은 어떡하나, 남들은 나를 패배자로 보겠지." 라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짓는 상황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수입이 사라진 인간은 존재 가치를 상실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촉망받던 전문가가 오늘의 낙오자로 전락하는 이 비극은, 돈에 생존 주권¹을 저당 잡힌 채 나만의 서사를 잃어버린 우리 모두에게 예고된 미래일지 모릅니다.

(2) 기계적 문명을 넘어 생명의 길로

이 책은 바로 그 불안한 상수들이 위험 변수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숨 막히는 '회색지대'에서 탈출해, 내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비상구는 어디일까요?

새로운 비상구 오름마을의 가상 시나리오는 스스로 생존 주권을 확보한 삶의 예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공급하고, 빗물이 정화되어 생활용수로 쓰며,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순환됩니다.

¹ **생존 주권(Survival Sovereignty):** 거대 자본이나 국가 시스템의 배급 및 분배 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개인과 지역 공동체가 생존에 필요한 필수 자원(에너지, 식량, 주거, 데이터 등)을 스스로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자급자족을 넘어, 기술의 민주화를 통해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나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삶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성을 뜻한다.

이웃과 자원을 나누고, 공동체가 함께 돌봄을 실천합니다. AI 가디언은 에너지 흐름과 자원 순환을 관리해 불안정한 외부 시스템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곳에서는 돈이 아니라 연결과 순환이 삶을 지탱합니다.

생명의 길로 현대 인류 문명은 인간이 가진 경이로운 지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 하나의 혈관이 막히더라도 주변 조직이 우회로를 만들고 다른 신경세포가 기능을 분담하며 생존을 이어가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복원력²**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축한 문명의 하부구조는 오직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선 하나만 끊겨도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위태로운 기계적 결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부구조의 붕괴라는 감당하기 힘든 재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를 보완하며 스스로 치유하는 생명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거대 인프라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처럼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돌보는 분산형 자립 구조가 문명의 하부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인간의 신체가 이미 증명해온 생명의 지혜를 우리 사회 시스템에 어떻게 이식할 것인지에 대한 절박한 제안입니다

² 측부 순환(Collateral Circulation) 및 신경 가소성(Neuroplasticity): 인체는 주요 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었을 때, 평소 사용하지 않던 미세 혈관들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혈관 통로를 열어 혈류를 우회시키는 '측부 순환' 기제를 작동시킨다. 특히 뇌의 기저부에는 윌리스 서클(Circle of Willis)이라 불리는 고리 모양의 혈관 네트워크가 있어, 한쪽 동맥이 폐쇄되더라도 반대편 혈류가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특정 뇌 부위가 손상되면 손상되지 않은 주변의 신경세포들이 그 기능을 대신 학습하여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신경 가소성'이 발현된다. 이는 중앙 통제 없이도 부분의 파손이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생명체 특유의 자율적 복원력(Resilience)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제1장] 돈이 사라진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머니로직의 종말과 각자도생의 시작

- ✓ 우리는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돈은 시스템이 작동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 ✓ 전력·식량·물·공동체가 흔들리면 화폐는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 이 장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부의 전제'를 점검합니다.
- ✓ 이 전제가 무너지면, 하부구조의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1. 깨져버린 약속: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환상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라. 그러면 너의 삶은 풍요롭고 안전할 것이다."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세기 인류를 지탱해 온 가장 강력한 신화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배, 성장, 경쟁의 '**머니로직(Money Logic)**'이라 부릅니다. 지배하기 위해 경쟁하고, 파이를 키우면 그것이 곧 성장이며, 그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 즉 '성장이 곧 생존'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국가와 시장은 이 논리 위에서 작동했습니다. 국가는 경제를 성장시켜 세금을 걷고, 그 돈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창밖을 보십시오.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고된 파국: '성장 엔진'이 멈춘 대한민국

반세기 전인 1972년, 로마클럽은 보고서 '성장의 한계'³를 통해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21세기 중반에 붕괴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당시엔 비관론으로 치부되었으나, 50년이 지난 지금 기후 위기, 양극화, 기술 실업이라는 '**다중위기(Polycrisis)**'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인류를 번영으로 이끌던 '성장 엔진' 자체가 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머니로직의 모범생'이었던 대한민국은 가장 극적인 붕괴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실질 소득은 1.2% 성장에 그친 반면 물가는 3.6%나 폭등했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은 18% 급증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상위 10%가 자산의 절반

³ 1972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로, 자원 고갈, 인구 증가, 환경 오염 등을 변수로 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통해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성장의 물리적 한계를 경고한 문헌

가까이를 독점하는 동안 하위 50%의 몫은 9.1%에 불과할 정도로 자산 양극화는 역대 최악입니다.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머니로직의 약속은 위험 변수의 과부하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증거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머니로직 안에서는 더 이상 생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청년 세대의 집단적인 '**사회적 파업**'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이 앞으로 70년 정도 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⁴ 두 집중에 하나는 빈집일 수밖에 없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를, 삶을 지켜줄 '방패'라고 믿어왔지만, 그것은 평상시에만 빛나는 '훈장'에 불과했습니다. 훈장은 과거의 승리를 증명할 뿐, 폭풍우가 몰아칠 때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기존의 '인재' 정의는 오로지 시스템의 효율을 위해 설계된 도구였으며,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다중위기 시대에는 오히려 가장 먼저 버려지는 취약 계층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유능해지라는 압박 대신, **어떤 구조 위에서 살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지능적인 전략입니다.

2. 머니로직의 파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생존 주권

그렇다면 머니로직은 왜 파산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 핵심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파괴적인 구조, 바로 **선형적 추출 경제(Linear Extraction Economy)**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원자재를 뽑아내고(Take),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Make), 잠깐 쓰고(Use), 결국엔 버립니다(Waste). 사실 집안에 아끼며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도 결국에는 버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익(Profit)은 기업과 자본가에게 집중되지만, 그 대가로 발생하는 엄청난 쓰레기와 탄소는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은 채 지구에 쌓이거나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외부효과(Externality)**라고 부르며 애써 무시해왔지만, 사실 그것은 언젠가 갚아야 할 거대한 '**생태적 부채**'였습니다.

이 선형적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중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 **기후위기의 가속화:** 자연의 재생 속도를 무시한 약탈적 채굴은 지구라는 행성을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만들며 문명의 하부구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 **양극화의 심화:** 이익은 사유화되고 오염과 환경 파괴라는 손실은 사회적으로 외주화되면서, 상위 10%가 자산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는 극단적인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 및 국내외 인구통계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저출생 추세(합계출산율 0.7명대 이하)가 고착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4년 약 5,175만 명에서 2072년경 3,017만 명으로 급감하며, 2090년대 초반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 이는 단순한 숫자 감소를 넘어, 머니로직 기반의 사회 인프라와 국가 성장 엔진이 더 이상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는 '인구 파산'의 임계점임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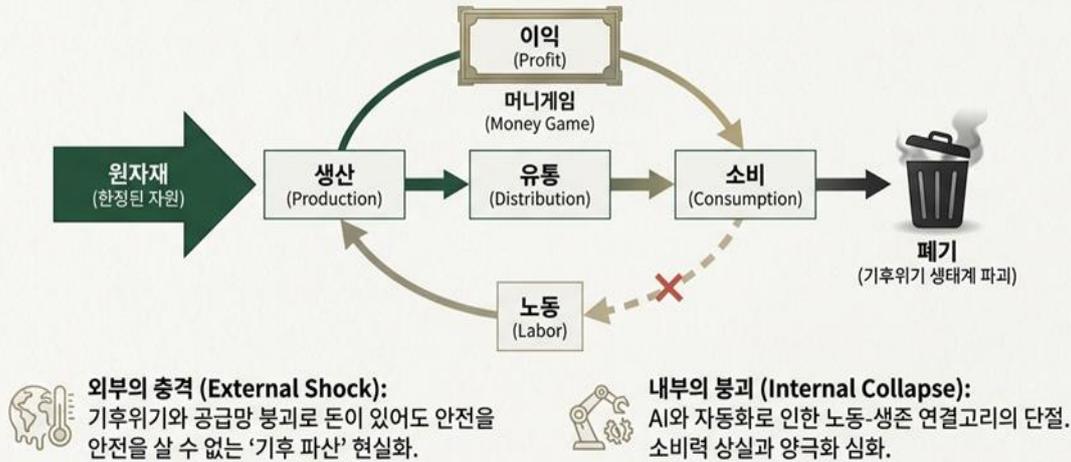
- **기술의 도구화:** 머니로직은 효율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AI와 기술을 발전시키지만, 이는 결국 인간의 소비력을 앗아가고, 인간을 시스템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킵니다.

결국 그동안 우리가 **공짜**라고 믿었던 자연과 공동체의 가치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던 도덕적, 경제적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 변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시장도 멈췄다, 세계는 지금 '생존 폭동' 중 머니로직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어 균형을 맞춘다"는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했습니다. 또한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증가하여 부가 축적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AI 등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면서 얻은 효과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머니로직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한 축인 소비자 즉 인간의 **소비력**이 갈수록 감소하여, 결국 아무리 값싼 물건이 나와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 재난으로 밀밭이 타 들어가고, 식량과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갈수록 작동 불능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5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차나 더 큰 집을 원해서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국가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정부 청사와 의회를 점거하거나 방화하는 사태로까지 번졌고, 그 결과 몇몇 국가는 정부 해산이나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⁵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중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성장 중심의 머니로직이 생존과 회복탄력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명적 경고**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⁵ 2025년 **네팔**에서는 대규모 시위와 의회 방화 사태 이후 총리가 사임하였고,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전력·물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 이후 대통령이 정부를 해산하였다. **불가리아**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정부가 사임하였다. (출처: AI Jazeera, 2025.9.9; 2025.9.29; 2025.12.11)

‘머니로직(Money Logic)’의 한계: 성장이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지 못하는 악순환



단일 엔진(국가/시장)만으로는 이 복합 위기를 견딜 수 없습니다.

SDX
NotebookLM

기후위기 (자연이 보내는 청구서) 지난 수백 년간 인류 문명을 이끌어 온 성장 중심의 머니로직은 막대한 부를 창출했지만, 동시에 기후위기라는 구조적 비용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는 단순한 이상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외부화 해왔던 비용이 되돌아오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돈이 있으면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높은 지대에 집을 짓고,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갖춘 공간을 마련하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특정 개인의 회피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작물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 기상 현상이 물류와 에너지 인프라를 흔들면, 문제는 '날씨'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됩니다.

활주로가 침수되면 전용기는 이륙하지 못하고, 토양 생태계가 무너지면 자산의 규모와 무관하게 식량 생산은 어려워집니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개별 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 시스템의 취약성에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은 이것이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식량·에너지·주거와 같은 기본 조건이 불안정해질수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날카로워지고, 공동체의 결속은 느슨해 집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협력보다 공포가 먼저 작동합니다. 기후위기는 자연 현상이지만, 그 파장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 중심의 머니로직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생태적 기반과 분리된 채 작동해 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술위협 (통제의 속도를 넘어서는 혁신) 자연의 역습만큼이나 두려운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의 가속입니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이미 노동시장의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단순 노동을 넘어 전문직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으며, 일부 직무는 축소되거나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AI의 영향은 노동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 분야에서도 AI 기반 설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AI를 활용해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고, 병원체의 특성을 예측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인류에게 큰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오남용이나 통제 실패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가치 체계 아래에서 가속되는가에 있습니다. 성장과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에서는 기술의 '엑셀'은 빠르게 밟히지만, 사회적 안전장치라는 '브레이크'는 상대적으로 늦게 마련됩니다.

만약 AI가 금융 시스템이나 전력망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교란하는 수준의 사이버 위기를 촉발한다면, 혹은 생명공학 기술이 통제를 벗어난 형태로 악용된다면, 그 충격은 국경과 계층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 인프라와 생태 시스템은 현대 문명의 혈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앞서 기후위기에서 보았듯이,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 개인의 자산 규모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돈은 인간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신뢰의 매개일 뿐, 생물학적 재난이나 기술적 시스템 붕괴 앞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패는 아닙니다.

★ 나를 위한 짧은 질문 (To-think)

- 만약 내 월급이 오늘 멈춘다면 나는 몇 달을 버틸 수 있는가?
- 내 월 고정비 중 내가 스스로 통제 가능한 비율은 몇 %인가?
- 나는 생산자인가, 소비자인가, 아니면 시스템 중개자인가?
- 나는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가, 아니면 시스템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가?
- 이번 달 안에 내가 줄일 수 있는 '의존도 1가지'는 무엇인가?

3. 가짜 풍요에 대한 경고: 일론 머스크의 예언이 감춘 미싱 링크

일론 머스크는 AI와 로봇이 대부분의 노동을 대체하고 생산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희소성이 사라진 '풍요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하면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산업에서는 한계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산 비용이 아니라 소득 구조입니다.

자동화가 진전될수록 생산은 늘어날 수 있지만, 노동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기반이 약화됩니다. 가격이 낮아져도 구매력이 사라진다면 시장은 활력을 잃습니다. 경제 시스템은 단순히 '싸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지불할 수 있는 구조'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기본소득은 자동화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최소한의 소비 능력을 유지하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 노동 동기, 생산 구조와의 정합성 등 여러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분배 메커니즘입니다.

AI는 생산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성과가 어떻게 사회 전체에 배분되는지는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생산과 소득이 구조적으로 분리된다면, 효율성의 증가는 곧바로 사회적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가 아니라, **기술이 창출한 가치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생산 비용이 아무리 낮아져도 사회는 풍요를 체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존 수단의 민주화: 머스크가 말하지 않은 역설

머니로직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 진보는 노동의 소외와 실업이라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만 바꾸면, 같은 기술이 거대 시스템에 대한 종속을 끊어내는 강력한 해방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론 머스크가 예고한 자동화와 AI 혁명은 또 다른 출구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로봇과 AI의 확산은 소비재뿐 아니라 생산재의 가격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장치, 소형 스마트팜 설비, 분산형 제조 장비 등은 이미 빠른 속도로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지역 단위의 생존 주권 확보에 이런 기술들이 사용된다면, 외부 충격에 덜 흔들리는 삶의 단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생존 주권의 회복** 기술 가격의 하락은 생산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넓힙니다. 이는 자본 독점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개인과 공동체가 최소한의 에너지와 식량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 **요새화된 일상** 저렴해진 분산형 생산 설비는 집과 마을을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생산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일부 식량을 자급하며,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를 갖춘 일상은 이전과 다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파트너로서의 기술** 이때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농업 최적화·자원 배분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기술의 방향은 그것을 둘러싼 가치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저렴해진 물건을 소비하는 대상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생존의 주권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술은 위협인 동시에 기존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선택은 기술의 발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4. 새로운 인류의 등장: 살림가(Salimist)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찰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젖은 날개를 펴기 위해 온몸의 피를 날개 끝으로 보내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은, 제가 바라보는 지금 이 시대의 문명적 전환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나비는 좁은 고치를 빠져나오는 필사적인 우화(Ecllosion)[1]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창공으로 비상할 준비를 마칩니다.

갓 고치를 벗어난 나비는 아직 주글주글하고 힘없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펼치기 위해 나비는 복부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켜 체액을 날개맥(Wing veins)[2] 끝까지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이 강력한 수압으로 접혀 있던 날개가 팽팽하게 펴지고, 시간이 흐르며 날개가 단단히 굳어지는 경화의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중력을 이겨낼 근육과 골격이 완성됩니다.

저는 인류가 머니로직을 통해 이룩한 눈부신 양적 성장과 디지털 공간에서의 질적 도약이 새로운 사회로 이동하는 도약의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작금의 다중 위기는 시스템의 파멸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비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통과 의례라는 것이 저의 주관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좁은 고치를 깨고 나온 나비가 온 힘을 다해 날개맥 끝까지 생명의 수액을 채우듯, 우리 역시 거대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머물던 관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존 주권을 회복하고, 전체 생명사회를 지탱하는 건강하고 자율적인 **세포(Cell)**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그 자체로 완결된 생명이자 유기체 전체를 살리는 기본 단위이듯, 인간 역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중력을 이기고 새로운 문명의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 치르는 이 고통스러운 몸부림이야말로, 지금의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세포의 역할을 담당할 인재: 살림가(Salimist)

왜 '살림가'인가? - '리빙(Living)'을 넘어선 생명 철학 우리는 흔히 '리빙(Living)'과 우리말 '살림'을 비슷한 의미로 혼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말 '살림'은 단순히 '생활'이나 '거주'를 뜻하는 단어 그 이상의 깊고 역동적인 생명 철학을 품고 있습니다.

'살림'은 '살리다'의 명사형입니다. 여기서 살림은 단순히 타자를 일방적으로 돕는 행위를 넘어, 타자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우리의식(WE-ness)**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와 자연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만물의 생명력을 복돋우는 모든 숭고한 행위가 바로 살림인 것입니다.

따라서 '살림살이'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지혜를 발휘해 부족함을 채우고, 관계를 조화롭게 가꾸며, 정체된 곳에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한민족의 정신사적 자산인 이 살림의 지혜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류 모델인 살림가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I)의 확장으로서의 세계 이러한 살림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입니다. 한국인의 '우리'는 영어의 'We'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우리 남편', '우리 부인'을 직역하면 어색해지는 이유는, 이 표현 안에는 상대가 나의 확장된 존재라는 깊은 유대감과 세계관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 회복력의 근간, 우리의식 이러한 우리의식은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한 강력한 회복력의 근간이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부터 IMF 금 모으기 운동, 그리고 유례없는 속도로 완수한 산업화와 정보화 혁명의 저력은 바로 이 공동체적 자기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에도 깊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두레와 품앗이, 향약, 그리고 까치밥과 고수레, 십시일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식과 살림문화가 결합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새로운 인류 모델: 살림가(Salimist) 이제 이 살림의 정신은 머니로직의 경쟁과 결핍을 넘어,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인식 아래 함께 공존하는 길을 찾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살림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인류를 **살림가(Salimist)**라고 정의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찾는 살림가의 확산은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생명사회의 건강하고 자율적인 **세포(Cell)**가 되어 주변과 공동체를 끊임없이 살려내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제가 상상하는 살림가의 모습이자 새로운 문명의 주역입니다.

살림가의 진화 단계

살림가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며 시스템의 부속품에서 생명사회의 주역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1단계: 생존 주권의 확립 - 제로 베이직(Zero Basic) 살림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토대는 에너지, 식량 등 기초적인 생존 요소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로 저렴해진 생산 수단을 활용하여 '돈 없으면 죽는다'는 공포로부터 해방될 때, 인간은 비로소 사유의 주권을 되찾고 자율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2단계: 일상의 수행 - 달란트를 발현 생존 주권을 확보한 살림가에게 일상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숭고한 수행의 장이 됩니다. 나를 살리고 이웃을 돌보며 생명을 보살피는 살림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몰입하고 기쁨을 느끼는 지점인 달란트(Talent)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상의 수행은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됩니다.

3단계: 장르마스터(Genre Master) - 지구적 선(ESGG)⁶ 축적된 살림의 실천과 고유한 달란트가 결합하면, 세상에 없던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양식인 '장르'가 탄생합니다. 남이 정해준 직업의 틀을 넘어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서사가 되고, 이것이 지구적 선(ESGG)에 이바지할 때 비로소 한 분야의 경지에 이른 '장르마스터'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는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구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살림가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살림사회를 향한 비전 살림가는 효율과 이윤이라는 머니로직의 잣대로 소외되었던 생명체, 인간관계, 나아가 우주적 가치와 공감하며 새로운 장르를 창조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이들의 활동은 매우 광범위해 지고 더 깊은 의미를 지니며 가치 있게 교환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윤리적 풍요가 넘치는 살림사회를 만드는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대한 전환이야말로 기후 파산과 양극화라는 시대적 위기를 인류의 새로운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작은 행동이 만드는 위대한 변화 살림가로 나아가는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곁의 생명을 따뜻하게 돌보는 인식의 전환이라는 아주 작은 틈새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모여 나만의 장르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시스템의 부속품이 아닌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 정직한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머니로직의 흐름을 멈추고, 생명과 윤리가 숨 쉬는 살림사회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모여 나만의 '장르'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시스템에 휘둘리는 부품이 아닌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이 작고 정직한 행동의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머니로직의 흐름을 멈추고, 생명과 윤리가 살아 숨 쉬는 '살림사회'로의 도약이 이루어

⁶ 지구적 선(Global Good)과 ESGG (Ethical Sustainable Global Good): '지구적 선'은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며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살림로직의 최종 목적지를 뜻한다. ESGG(Ethical Sustainable Global Good)는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구적 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문명 지표다.

어질 것입니다.

5. 대전환: 국가와 기업, '공급자'에서 '살림 파트너'로

개인의 작은 인식 변화와 행동이 실질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의 대전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머니로직을 유지한 채, 기후위거나 양극화, 기술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와 기업은 이제 국민과 고객을 머니로직의 소모품, 즉 생산과 소비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대신 그들을 '생존 주권자'로 정의하고, 개개인이 어떻게 기초생활의 안정(Zero Basic)을 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국가의 예산과 기업의 자산이 투입되는 방향은 더 이상 머니로직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지구적 선을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이자 '살림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 없이 기존의 머니로직에 의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결국 공멸의 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살림가의 든든한 파트너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가 만든 엄청난 기술을 인류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국가: '복지 자판기' 문을 닫고 '살림 플랫폼'을 열어라

지난 세기 동안 국가는 거대한 '복지 자판기'였습니다. 국민이 세금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치안, 교육, 복지라는 상품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과 인구 절벽으로 세수 주입은 줄어드는데, 기후 재난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판기의 재고는 바닥났는데 정치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빈 자판기를 흔들며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 **예산의 물길을 돌려라:** 매년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 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텅 빈 문화센터를 짓는 데 낭비되고 있고, 국방, 교육 등 머니로직을 위해 쓰이던 예산도 무의미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살림가를 위한 초기 인프라 구축에 투입해야 합니다.
- **지능적인 국가 경영 전략:**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대신, 분산 발전을 통해 일반 전력 수요를 해결한다면 부족한 AI 전력을 기존 전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머니로직을 벗어나면 지금의 예산을 새로운 미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을 협력자로 격상:** 국민을 생산 및 소비의 대상이나 부양의 대상이 아닌 생존 주권을 가진 국가의 든든한 협력자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살림가가 많아질수록 국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고, 행정력은 진짜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2) 기업: '재화의 공급'에서 '생존의 동료'로

기업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AI가 물건을 공짜에 가깝게 찍어내더라도, 일자리를 잃은 대중에게는 소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만들어 많이 판다"는 지난 100년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 **B2S(Business to Salim) 시장의 탄생:** 기업은 대중을 수동적인 소비자로 남겨두는 것보다, 고객을 '살림가'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이익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객이 생존해야 기업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 **성숙재(Maturity Goods)를 통한 가치 창출:** 단순히 소비되고 사라지는 물건이 아니라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역량을 높여주고, 자립을 도와주는 도구 다시 말해 삶의 질을 높이는 '성숙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자립과 풍요를 돕는 구조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미래의 자동차 회사는 고객의 집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자동차의 배터리를 거대한 에너지 저장고로 활용하여 가정의 에너지 독립을 돕는 '에너지 솔루션 파트너'로 변신할 것입니다. 고객이 에너지 비용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립할 때, 기업은 그 안정된 삶의 터전 위에서 더 고차원적인 '성숙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생태계의 동반자가 됩니다.

3) 새로운 사회 계약: 각자 도생을 넘어선 '살림 거버넌스'

머니로직 시대에 국가와 기업은 일방적인 '공급자'였고 개인은 '소비자'였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에는 이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살림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합니다

- **국가 - 삶터 관리자:** 국민을 부양 대상이 아닌 국가 경영의 '동료'로 인식해야 합니다. 낡은 법과 제도를 혁파하여, 국민 개개인이 생존 주권을 회복하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살림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기업 - ESGG 파트너:** 기술의 목적을 '재화의 대량 생산'에서 'ESGG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로 개인이 고유한 달란트를 발견하게 돕고, 이를 독창적인 장르로 꽃피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술적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 **개인 - 살림가:** 국가와 기업이 제공한 토대 위에서 스스로를 가꾸고 이웃과 지구를 돌보는 실천가입니다. 이들은 일상의 수행을 통해 생존 주권을 행사하며, 최종적으로 지구적 선을 추구하는 '장르마스터'로 도약합니다.

전환은 파국을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쌓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이라 믿어왔습니다. 수만 년간 우리 뇌에 각인된 이 생존 본능은 결핍의 시대에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 거대한 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 몸집을 키워가는 필연적인 성장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풍요가 넘쳐나 지구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 지금, 역설적으로 그 본능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 질주하는 동안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기후는 파산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인류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이 불러온 역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양적 성장을 멈추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 임계점에 서 있습니다. 아이의 옷이 성인에게 맞지 않듯, 인류를 지탱하던 머니로직(Money Logic)이라는 낡은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국가 예산의 설계부터 우리의 존재 양식까지, 모든 것은 이제 새로운 로직 위에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기업은 지금 즉시 무한 성장의 낡은 물길을 돌려야 합니다. 메말라가는 개인의 삶에 생존 주권을 되찾아줄 생명수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고객의 진정한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머니로직이라는 낡고 해진 옷을 당장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 옷이 우리를 이만큼 키워낸 공로는 분명하지만,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지금의 우리를 담아 내기엔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이제 내 안의 혁명을 시작할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거대한 전환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파도를 타고 비상하게 할 내면의 무기, SERA 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to do list] 살림가로의 각성: 지금 당장 시작하는 5가지 훈련

많은 독자가 1장을 읽고 무거워진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인가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전환은 '방향'과 '순서'의 문제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살림가로서의 **살림 근육**을 키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선행될 때, 당신은 어디에 있던 삶의 주권을 쥔 살림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1) 존재론적 자존감의 회복: 밥을 짓는 수행

돈이 끊겼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배달 앱을 끄고 쌀을 씻어 직접 밥을 지어 보십시오. '소비'가 아니라 '창조'를 통해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진다는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이 작은 행위가 시스템에 저당 잡혔던 당신의 존재를 가장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2) 순환의 감각 회복: 고쳐 쓰는 태도

머니로직은 고장 나면 버리고 새것을 사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살림가는 관리자로서 생태계의 순환의 이치를 눈 여겨 관찰하며, 필요하면 고쳐 쓰고, 버리는 것에 신중해 집니다. 험거워진 의자 다리를 조이고 구멍 난 양말을 꿰매는 그 손길은 훗날 이웃과 지구를 돌보는 책임 의식의 씨앗이 됩니다.

3) 가치 창조의 시간 확보: 쓸모 있는 딴짓

하루 30분이라도 돈과 무관한 '몰입의 시간'을 마련하세요 누군가를 돕거나 글을 쓰는 등 머니로직이 '비생산적'이라 비웃는 일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쌓여 직업(Job)이 사라진 뒤에 도 당신의 영혼을 지탱해 줄 당신만의 진짜 **업(Deep Job)**이 됩니다.

4) 공감의 실천: 최소한의 신뢰 구축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주변에 마음에 드는 이웃이 있다면 사소한 배려와 도움을 먼저 제공해 보십시오. 남는 반찬을 나누거나 약을 사다 주는 작은 '오지랖'이 닫힌 문을 엽니다. 내가 먼저 타인의 삶에 공감할 기여할 때, 새로운 신뢰의 연대가 형성됩니다.

5) 관점의 대전환: 나만의 장르 정의하기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나는 () 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타인의 정답이나 시스템의 숫자(연봉)를 따라가는 스페셜리스트의 삶을 멈추십시오. 이 빈칸을 채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만의 삶을 만드는 **살림가**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제2장] 내 안의 혁명: 돈의 종속을 끊는 무기, SERA

: 성공을 위한 핵심 역량, SERA

- ✓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역량입니다.
- ✓ SERA(Story·Empathy·Resilience·Achievement)는
내적 자산 구조를 설명합니다.
- ✓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내면과 관계, 회복력에 기반한 부를 다시 정의합니다.

세상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후 재난, AI 의 위협,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까지. 이 모든 공포의 본질은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감각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고치 안에서 안주해왔지만, 이제 그 고치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운전석을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1 장에서 우리가 마주한 절망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절망을 비상(飛上)의 에너지로 바꿀 구체적인 무기를 꺼낼 차례입니다. 2 장은 세상이 흔들려도 나를 지탱하고, 나아가 나만의 장르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내면 역량 SERA 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행복을 유예하지 마라: 은행가와 어부의 대화

살림가가 된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그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어느 날, 멕시코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하버드 MBA 출신의 잘나가는 미국인 은행가가 휴가를 왔습니다. 그는 작은 배에서 참치 몇 마리를 잡고 돌아오는 어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 정도 잡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 안 걸려요. 한두 시간이면 족합니다." 은행가는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남는 시간에는 도대체 뭘 합니까? 더 잡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텐데요." 어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잠 자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요리도 하고, 저녁에는 마을에 나가 친구들과 기타 치고 포도주 마시며 놉니다."

은행가는 답답하다는 듯이 머니로직의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해요. 더 오래 일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세요. 그 돈으로 큰 배를 사고, 나중에 선단을 꾸리세요. 그리고 잡은 고기를 중간상인에게 넘기지 말고 직접 공장을 세워 유통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 시골 어촌을 떠나 뉴욕에서 기업을 상장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부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나요?" 은행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게 하이라이트죠! 은퇴해서 경치 좋은 바닷가 마을로 가서, 늦잠 자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요리하고, 저녁엔 친구들과 포도주 마시며 여생을 즐기는 겁니다."

어부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행가(머니로직)는 행복을 위해 20년의 고통스러운 경쟁과 노동을 감수하라고 합니다. 목적지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부는 이미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려는 살림가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거창한 희생이나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렌즈를 빼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돌아가려 했던 목적지가 사실은 바로 내 코 앞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2.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라: 살림가가 되라

1) 영웅(Hero)을 기다리는 자의 위험한 도박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본능이 꿈틀거립니다. 바로 '강력한 구세주(Strongman)'를 찾는 본능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의 밥그릇을 지켜주겠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 등과 같은 스트롱맨들이 전 세계적으로 득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혼란은 나폴레옹이라는 황제를 불렀고, 1930년대 대공황의 절망은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낳았습니다. 대중은 불안을 잠재워줄 영웅에게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웅은 구세주가 아니라, 인류를 더 큰 전쟁과 파국으로 몰고 간 폭주 기관차였습니다.

국가가, 회사가, 혹은 어떤 위대한 리더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메시아 콤플렉스'를 버리십시오. 난세의 생존법은 누군가의 승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내 배를 직접 모는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2) 지배자가 아닌 관리자: 청지기(Steward)의 재발견

이제 우리는 인류의 고전적 지혜인 '청지기(Steward)' 정신을 소환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관리자를 뜻합니다. 머니로직 시대의 인간은 자신을 지구의 '주인'이라 착각하며 약탈적으로 자원을 채굴하고 소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살림로직⁷ 시대의 우리는 이 푸른 행성을 잠시 빌려 쓰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

⁷ 살림로직(Salim Logic): 지배, 성장, 경쟁 중심의 머니로직에서 벗어나 순환, 공존, 자원의 에코로직을 접목하여 살림, 풍요, 윤리를 추구하는 대전환된 가치 체계입니다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지혜입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등 모든 지혜는 우리가 지배자가 아닌 '연결된 생명을 돌보는 책임자'가 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주인을 대신하는 관리자는 더 좋은 상태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더 소중히 다루는 이 '책임감'과 '태도'야말로 무너지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품격이자 무기가 될 것입니다

3) 살림가(Salimist): 살리는 사람들의 탄생

우리는 이 청지기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실천하는 사람들을 살림가라 부릅니다.

살림가는 거창한 환경운동가가 아닙니다.

- **머니로직의 인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를 고민하며 경쟁합니다. (Taking)
- **살림가:** "어떻게 하면 망가진 것을 살려낼까?"를 고민하며 돌봅니다. (Caring)

고장 난 선풍기를 버리지 않고 고쳐 쓰는 사람, 삭막한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어 벌들을 불러모으는 사람, 옆집 아이의 끼니를 챙겨주는 사람. 이들이 바로 살림가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세기 동안 자본주의라는 엔진을 달고 물질적 풍요(근육)를 키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힘센 어른이 그 힘을 약자를 괴롭히는 데 쓰면 '폭력'이지만,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면 '헌신'이 되고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본을 지배가 아닌 '살림'을 위해 쓰는 것. 이것이 인류가 진화해야 할 다음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머니로직과 살림로직의 다른 성공 방정식 머니로직의 성공 방정식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돈이 목적이고 인간의 재능이나 시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돈을 쫓다 보니 늘 경쟁에 치이고, 정작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얕은 노동(Shallow Job)**⁸은 이제 기계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살림로직의 성공 방정식은 '**지구적 선을 수행하다 보니 돈과 명예가 따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나만의 고유한 재능으로 세상을 살리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살림노동에 몰입할 때, 그 가치에 감동한 에너지가 화폐와 명성이라는

⁸ 얕은 노동 (Shallow Job):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고도화된 사회에서 인간의 업무가 기계의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를 뜻합니다. 복잡한 의사결정이나 전문적 통찰은 알고리즘이 담당하고, 인간은 AI가 처리하지 못하는 단순 확인, 물리적 뒷처리, 혹은 데이터 라벨링과 같은 분절된 과업만을 수행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노동의 숙련도를 낮추고 인간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만듦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와 생존 주권을 상실케 하는 '영혼 없는 노동'을 경고하는 개념입니다.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쫓게 만드는 '풍요의 방정식'입니다.

더 이상 나를 지켜 줄 영웅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타인이 내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이제 당신이 직접 당신 삶의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머니로직의 부속품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고장 난 것을 고치며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살림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스스로 살림가가 된다면 비로소 돈에 의한 불안은 사라지고 존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살림가가 갖춰야 할 4 가지 구체적인 내면의 도구, SERA 를 만날 차례입니다.

★ 나를 위한 짧은 질문 (To-think)

- 나는 언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는가?
- 나는 실패했을 때 복원되는 사람인가, 무너지는 사람인가?
- 나는 공감으로 연결된 사람 몇 명을 떠올릴 수 있는가?
- 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삶의 서사를 가진 사람인가?
- 이번 주 안에 내가 실천할 'SERA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인가?

3. SERA: 나를 지키는 4가지 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살림가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착한 마음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중위기의 파도는 거칠고 사납습니다. 우리는 미래 리더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SERA(세라)** 모델로 정의합니다. Story(스토리), Empathy(공감), Resilience(회복탄력성), Achievement(성취). 이 4 가지가 살림가의 무기입니다.

1) Story (스토리): 위기를 해석하고 희망을 설계하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과 자신을 교환하는 일에 종사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상황을 창조적이고 의미 있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이제 망했다"고 절망할 때, 살림가는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Story)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식량 가격이 폭등한 것은 위기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텃밭을 일구고 식량 주권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AI 가 일자리를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지겨운 노동에서 해방되어 서로를 돌볼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재해석(Reframing)**⁹ 하여 공동체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머니로직의 낡은 성공 스토리를 폐기하고, 살림로직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서사를 입히는 능력, 이것이 살림가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여기서 막막해 합니다. "저는 평생 회사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머니로직 세상에서 우리는 나만의 이야기를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함(Title)과 연봉이 곧 나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따라서 살림가의 스토리는 외부의 위기를 해석하기 전에, **'나'를 재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잃어버린 당신의 정체성(Identity)를 발굴하고, 그것을 매력적인 스토리로 만드는 3 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실전 가이드] 나만의 살림 스토리(Identity)를 만드는 3 단계

1 단계: 아이덴티티 발굴 (Money Logic 걷어내기) 먼저 명함 속에 적힌 내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반응하는 **'동사(Verb)'**를 찾는 것입니다.

- **질문:** 돈을 받지 않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 **발견:**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Listen)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고장 난 것을 고칠 때(Fix) 희열을 느낀다." 이 동사가 바로 당신의 진짜 직업의 씨앗입니다.

2 단계: 인과관계 구성 (Turning Point 설정) 이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하는 **'전환의 서사'**를 만듭니다. 미미한 자랑이 아니라, 실패와 아픔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고백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 **공식:** [과거의 착각] → [위기와 각성] → [새로운 정의]
- **작성 예시:** "과거에 나는 성공만이 정답이라 믿는 대기업 부장이었다(Before).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과 기후 재난을 겪으며(Trigger) 돈으로는 내 존엄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고장 난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마을 맥가이버'(After)**로 다시 태어났다."

3 단계: 비전으로 확장 (살림 비전 트라이앵글) 나의 스토리를 개인의 만족을 넘어 공동체의 비전으로 연결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살림가로 완성합니다.

⁹ **리프레이밍(Reframing):**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고착된 인식의 틀(Frame)을 바꾸어,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 의미를 재정의하는 심리적·철학적 과정을 뜻한다. 본고에서는 기술 진보를 노동의 위협으로 보는 '머니로직'의 틀을 깨고, 이를 생존 주권 회복을 위한 도구로 재해석하는 '살림로직'의 관점 전환을 의미한다. 즉, 위기를 파멸이 아닌 새로운 문명으로 비상하기 위한 우화(羽化)의 기회로 다시 규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일컫는다.

- **선언:** "나의 이 재능(고치는 능력)으로 이웃의 불편을 덜어주고(돌봄), 버려지는 자원을 줄여(회복), 우리 마을을 지속 가능한 살림셀로 만드는 데(기여) 쓰겠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실직이나 파산 같은 인생의 위기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아름다운 시련'으로 재해석됩니다. 이처럼 강력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이웃의 두려움까지 안아주는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2) Empathy (공감): 고통을 연결하는 접착제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세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는 필연적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공감(Empathy)**입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인간은 적자생존의 경쟁 기제가 아니라,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본능적으로 공명하는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 공감하는 인간)'다.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문명을 이어온 힘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이 '공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 덕분이다."

살림가에게 공감은 왜 필수적인가?

살림가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의 생명력을 복원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 **고통의 지점을 찾아내는 진단 도구** 의사가 환자의 통증을 알아야 처방을 하듯, 살림가는 이웃과 자연의 아픔에 주파수를 맞추으로써 무엇이 결핍되었는지 진단합니다. 공감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가장 정밀한 '생명 탐지기'입니다.
-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통로** 머니로직의 시대에는 각자가 섬처럼 고립되어 에너지가 정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살림가가 이웃의 외로움과 무력감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들어줄 때, 비로소 마음과 자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공감은 고립된 개인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살림셀'로 묶어주는 강력한 에너지 통로입니다.
-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살림법** 살림가는 이웃의 아픔을 단순히 동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가치 있는 서사로 환원해 줌으로써, 상처 입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자존감을 회복하게 돕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함께 살려낼 소중한 생명의 일부"라는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이 살림가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살림입니다.

공감은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생존 기술입니다. 이 접착제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도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살림가는 공감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내 삶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함께 공존하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판단을 멈추고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

[현실 예시: 층간 소음 갈등이 생겼을 때]

- **머니로직형 반응:** "몇 호인지 찾아내서 당장 따져야겠어. 법적 기준 데시벨이 넘는지 측정해 보자." (시비와 경쟁)
- **SERA 형 반응:** "윗집 아이가 아파서 칭얼거리는 걸까? 아니면 맛벌이 부부라 늦은 시간에 청소기를 돌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까? 쪽지에 음료수를 담아 문 앞에 걸어두자." (이해와 연결)

[실전 훈련: '3 분 거울(Mirroring)' 대화법] 가족이나 동료가 불만을 토로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세요. 딱 3 분간 상대방의 마지막 말을 거울처럼 따라 하세요.

- 상대: "요즘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와."
- 나: (해결책 대신) "그렇구나, 요즘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구나."
- 상대: "응, 미래가 안 보여서 답답해."
- 나: "미래가 안 보여서 정말 답답하겠네."

이 단순한 반복이 상대방에게는 "내가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살림가는 입이 아니라 귀로 사람을 연습니다

3) Resilience (회복탄력성): 꺾이지 않는 유연함

다중위기 시대에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 삶터가 파괴되거나, 전염병으로 공급망이 끊기는 상황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은 '효율성'이 아니라 다시 튀어 오르는 '회복탄력성'입니다.

살림가에게 회복탄력성이란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구체적인 '회복 루틴'에서 비롯됩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일상의 질서입니다. 살림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일상 루틴'을 통해 위기를 재해석하고 길을 찾습니다. 평소에 살림 활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살림가에게 위기 상황은 또 다른 도약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Efficiency)의 함정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앤드류 졸리는 그의 저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에서 완벽하게 효율적인 시스템은 완벽하게 취약하다고 경고합니다.

- **머니로직의 리더(유리공):** 최적화와 효율성을 신봉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재고를 없애고(Just-in-Time),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일 작물만 심습니다. 평상시에는 큰돈을 벌

지만, 충격이 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유리공과 같습니다.

- **살림가(고무공):**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양성(Diversity)과 잉여(Redundancy)를 둡니다. 패널이 고장 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작물을 섞어 심습니다. 이들은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고무공처럼 다시 튀어 오릅니다.

Bounce Back을 넘어 Bounce Forward로

살림가의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Bounce Back)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해 배우고, 시스템을 더 튼튼하게 업그레이드하여 이전보다 더 높이 튀어 오르는 도약(Bounce Forward)입니다.

김주환 교수는 회복탄력성을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마음의 근력이라 정의합니다. 살림가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데이터(Feedback)입니다. "패널이 태풍에 날아갔는가? 실패가 아니다. 이 지역의 바람 세기 데이터를 얻은 것이다. 더 튼튼한 지지대를 설계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재해석이 있어야만, 시스템은 꼭 짜인 기계가 아니라 상처를 입을수록 더 단단해 지는 생명체처럼 진화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는 훈련

[현실 예시: 공들여 키운 텃밭 농사를 망쳤을 때]

- **머니로직형 반응:** "거봐, 사 먹는 게 싸다고 했잖아.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했네. 다시는 안 해." (포기와 효율성 계산)
- **SERA 형 반응:** "이번엔 배추가 다 죽었네. 물 빠짐이 안 좋았던 게 원인이야. 덕분에 이 땅에는 배추보다 고구마가 더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 내년엔 고구마 심기 좋은 땅이 되겠군." (유연함과 학습)

[실전 훈련: '최악의 시나리오' 리허설] 주말 하루를 정해 집안의 두꺼비집(전기)을 내리고 수도 밸브를 잠그세요.

- 스마트폰 없이, 전등 없이, 수돗물 없이 24시간을 가족과 보내 봅니다.
-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곧 촛불 아래서 대화가 시작되고 받아둔 물로 설거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 이 작은 불편의 예방주사가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당신을 공황 상태(Panic)가 아닌 침착한 대응(Action)으로 이끕니다.

4) Achievement (성취): 성공 프레임의 파괴, 그리고 일상의 충만

머니로직 시대의 성취는 명확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목표로 모든 인생 계획을 짜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집과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실 감옥을 넘어: 규격화된 인재에서 창조적 괴짜로 기존의 학교 시스템을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그곳은 우리의 무한한 창의력과 호기심을 교과서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고, 국영수 점수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우리를 줄 세웠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엉뚱한 상상을 하거나 교과서 밖의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며 호기심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돈과 명예를 위한 기초 지식은 얻었는지 몰라도, 정작 무한한 생태계와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아버린 기능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낡은 교육의 감옥을 탈출해야 합니다. 성취는 정해진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나만의 질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상의 반복: 밥 짓기가 달란트 발견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취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밥을 짓고, 방을 쓸고, 텃밭을 가꾸는 행위. 머니로직은 이를 하찮은 가사 노동이라 폄하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나를 발견하는 가장 신성한 의식(Ritual)¹⁰입니다. 살림살이 제공하는 기초 생활의 안정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상의 반복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쁘는지, 내 손끝이 무엇을 향하는지, 즉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AI와 함께 만드는 나만의 장르(Genre) 과거에는 나만의 관심사가 있어도 그것을 가르쳐줄 스승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손에는 AI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작은 달란트가 발아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학교 커리큘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학습 과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AI를 멘토 삼아 깊이 파고들고, AI를 조수 삼아 세상에 없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I에게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AI를 내 창의성의 도구로 활용하여 나만의 고유한 장르(Genre)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나만의 이야기가 곧 직업이 되는 세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취는 바로 이러한 주체적인 창조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살림가의 일상이 반복되어 숙련의 단계에 이르면, 그는 비로소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창조하는 장르마스터로 진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로(Path) 자체를 바

¹⁰ **신성한 의식(Ritual):** 단순히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의 절차(Routine)를 넘어, 자신의 행위에 명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성스러운 실천을 뜻한다. 살림가에게 리추얼은 에너지를 아끼고 식량을 가꾸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지구적 선(ESGG)과 연결하는 영성적 통로이다. 이는 무의미하게 소모되던 시간을 자기 성찰과 생명 가치 창조의 시간으로 전환하여, 평범한 일상을 신성한 수행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핵심적인 삶의 양식이다.

꾸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학력이나 스펙이라는 낡은 훈장 대신, 그가 걸어온 고유한 서사와 실천의 기록이 실력이 됩니다. 이들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인하기 위한 '인증 제도'가 등장하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이들만의 깊은 경험과 이야기는 디지털 자산화 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시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80억 개의 지구적 선이 쏟아진다 상상해 보십시오. 80억 인구가 획일적인 돈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각자의 달란트와 AI를 결합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장르를 만들어내는 세상을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자부하지만, 인류는 **육상생물의 86%, 해양 생물의 91%**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¹¹. 심지어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까지 포함하면 지구 상에는 우리가 존재조차 모르는 생명체가 **최대 1조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¹² 우리는 이 거대한 생명공동체의 극히 일부만 알면서도, 마치 지구의 점령군처럼 군림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AI 기술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 수많은 생명체에게 비로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눈'과 '귀'가 되어줄 것입니다. 미지의 영역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장르마스터들이 개척할 '장르'가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AI의 도움을 받아 이름 모를 곤충의 신호를 해석하고, 흙 속의 미생물과 협력하여 병든 땅을 살려내는 새로운 업을 창조할 것입니다. 그들은 몰라서 파괴했던 과거를 넘어, 알기에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억 명의 사람들이 미지의 생명체들과 연결되며, 수십 억 개의 다양한 '지구적 선'의 가치를 쏟아낼 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롭고 다채로운 문명이 비로소 탄생할 것입니다.

바로 지구의 숨겨진 생명들과 함께 춤추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에서 내면의 만족으로 이동하는 훈련

머니로직 시대의 성취가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과시하는 것이었다면, 살림가의 성취는 존재의 충만함과 기여에서 옵니다. 내 안의 SERA 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일상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¹¹ Camilo Mora, et al., "How Many Species Are There on Earth and in the Ocean?", PLOS Biology, Vol. 9, No. 8 (2011). 이 연구에 따르면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생물종은 육상의 86%, 해양의 91%에 달한다.

¹² Kenneth J. Locey and Jay T. Lennon, "Scaling laws predict global microbial diversity", PNAS, Vol. 113, No. 21 (2016). 이 연구는 통계적 모델을 통해 지구상 미생물 종의 총합을 약 1조 종으로 추산했다.

현실 예시: 주말을 보내는 두 가지 시선

- **머니로직형 반응:** "이번 주말엔 밀린 잠이나 자고,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이나 구경해야지. 그게 남는 거야." (소비와 과시를 통한 인정 욕구)
- **살림가형 반응:** "고장 난 문고리를 내 손으로 고쳐야지. 삐걱거리는 소리가 사라질 때의 그 손맛, 그리고 가족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 벌써 설레네." (창조와 기여를 통한 내면의 만족)

실전 훈련: '소확행(살림의 행복) 로그' 작성

매일 밤, 돈을 버는 일 외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던 순간을 기록해 보십시오.

- "길냥이에게 밥을 주었다."
- "구멍 난 양말을 내 손으로 꿰매 신었다."
- "옆집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렸다."

이 기록이 쌓이면 깨닫게 됩니다. 나의 행복은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가 아니라, 나의 '살모'를 스스로 확인할 때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 자산은 훗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가 됩니다.

전환은 '이사'가 아니라 '순서'의 변화입니다

많은 독자가 SERA 를 배우며 스스로 묻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직장에 다니는 나도 살림가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전환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작은 '순서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 내 삶의 '머니로직 의존도'를 점검하라

- 전기가 끊기면 나는 며칠을 버틸 수 있는가?
- 배달망이 멈추면 나는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직함이 사라졌을 때, 나를 설명할 나만의 '장르'가 남아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며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화를 내려놓는 순간, 살림가로 향하는 첫 번째 비상구가 열립니다.

2) '개인 살림력'을 회복하라

새로운 시대의 안전판은 갑자기 등장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깨어난 개인들의 '살림력'이 모여 형성되는 결과물입니다.

- 내 손으로 밥을 지을 수 있는 능력
- 물건을 버리기보다 고쳐보려는 태도

- 이웃과 연결될 수 있는 마음의 여지

이 중 단 하나라도 회복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대전환의 파도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3) '느슨한 연대'를 위해 관계를 열어두라

많은 이들이 공동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섭과 책임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연대는 항상 함께하는 피곤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위기 때만이라도 서로를 외면하지 말자"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 같은 아파트 단지의 이웃 한 사람
- 단골 동네 가게 사장님
- 온라인에서 만난 같은 문제의식의 동료

사람을 억지로 모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계를 완성하지 않은 채 느슨하게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생존을 위한 씨앗은 이미 심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시스템이 멈춰도, 나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한 순간, 당신은 이미 이 책의 독자를 넘어 세상을 살리는 살림가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Zoom in] 귀큰여우창작소: 정답 없는 캔버스에서 '살림가'의 날개를 퍼다

살림가가 된다는 것은 거창한 기술을 익히기 전에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귀큰여우창작소의 창작미술 교육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자신만의 장르(Genre)를 구축하도록 돕는 살림가 양성의 전초기지입니다.

1) 스토리(Story): 비용에서 우주의 서사로

머니로직의 교육은 아이들을 규격화된 부품(비용)으로 취급하지만, 여기서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고유한 이야기를 가진 **우주의 서사**로 대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왜 이 작품을 만드는지, 이 작품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지 스스로 정의하며 자기만의 **살림 스토리**를 설계합니다.

2. 공감(Empathy): 타인의 고통에 주파수를 맞추다

아이들은 캔버스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마을의 독거 어르신이나 소외된 이웃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호모엠포티쿠스(공감하는 인간)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공감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관계 자본**이 됩니다.

3. 회복탄력성(Resilience): 실패를 즐기는 창조적 유연함

창작의 과정에서 겪는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데이터(Feedback)입니다. 재료가 마음대로 다루지지 않는 결핍의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본 아이들은, 훗날 다중위기 시대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력**을 갖게 됩니다.

4. 성취(Achievement): 소유를 넘어 존재의 충만으로

남보다 잘 그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손끝으로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과정 그 자체에서 **존재론적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훗날 이들을 지구적 선을 추구하는 위대한 **장르마스터(Genre Master)**로 도약시키는 강력한 체액이 될 것입니다.

"뱃을 드는 행위가 자신의 삶을 살리고 지구를 구하는 '거룩한 살림'을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4. SERA의 나침반 ESGG과 선조들의 지혜

SERA는 미래사회를 살아야 할 살림가들의 갖춰야 할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역량일수록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살림가가 추구해야 할 궁극의 목적지는 바로 지구적 선입니다. 지구적 윤리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선을 추구하자는 ESGG의 방향에 국가와 기업, 개인이 정렬할 때, 우리 생태계는 비로소 윤리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명의 새로운 나침반, ESGG

인류가 문명적 성년식을 통과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가 공유해야 할 새로운 가치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ESGG**(Ethical Sustainable Global Good)입니다. 이는 기존의 ESG가 기업의 이윤을 지키기 위한 수동적 성적표였던 것을 넘어, 인류 전체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 문명 표준입니다.

- **Ethical (윤리):** 생존을 단순히 돈의 문제로 보지 않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삶을 책임지는 '생존 주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육의 길이 아닌 자율적 존재로서의 책임입니다.
- **Sustainable (지속가능):** 약탈적이고 선형적인 추출 경제를 넘어, 순환과 공존의 에코로직을 일상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재생 속도를 존중하며 문명의 하부구조를 생명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 **Global Good (지구적 선):** 나만의 생존과 풍요를 넘어 지구 전체의 이익과 모든 생명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독창적인 장르가 지구적 선과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문명이 완성됩니다.

역사적 거장들이 증명한 가치의 생명력

ESGG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지배와 약탈의 머니로직을 넘어서 가치 경영으로 부와 가업을 영속시킨 위대한 거장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 **경주 최부자집의 공생(共生):**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그들의 가훈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이웃의 생존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긴 살림가 정신의 원형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은 민란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집을 지켜주게 만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뢰 자산'이 되었습니다.
- **남명 조식의 경의(敬義):** 마음을 맑게 하는 '경(敬)'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의(義)'를 강조한 그의 가르침은, 지식이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는 '얕은 노동'이 아니라 세상을 고치고 살리는 '수행'이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훗날 수많은 기업가에게 이윤보다 의로움을 앞세우는 기업가 정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 **지신정(止愼亭) 허만정의 절제:** 그의 호인 '지산'에는 탐욕 앞에서 멈출 줄 알고(止) 매사

에 이웃을 배려하며 삼가는(愼) 살림가 정신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부유함은 하늘이 잠시 맡긴 것임을 명심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학교를 세운 그의 가치 노동은, 오늘날 우리가 살림셀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협력적 경제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이 거장들은 모두 "가치를 목적으로 일하면 부와 명예는 덤으로 따라온다"는 살림의 제1원칙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가치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2030년인가: 문명적 생존의 마지노선

이러한 시스템의 대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2030년은 머니로직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이자 문명적 생존을 결정짓는 마지노선입니다.

- **기후 파산의 상습화:** 기후 위기는 단순히 날씨가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식량 공급망이 붕괴되고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2030년경에는 탄소 중립 실패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사회적 불안이 과부하를 일으켜, 돈으로 안전을 살 수 없는 '기후 파산'이 현실화될 것입니다.¹³
- **기술적 특이점과 존재의 위기:** 2030년경 인간을 초월한 인공지능(ASI)이 등장하면 지능 기반의 '얕은 노동(Shallow Job)'은 완전히 가치를 상실합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쓸모와 생존 주권을 재정의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사육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거나 대량 실업의 공포 속에 각자도생하다 멸절할 것입니다.¹⁴

¹³ 기후 파산(Climatic Bankruptcy)과 시스템 붕괴의 근거

전 세계적인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자본의 감당 범위를 넘어서는 상태를 의미한다.

1. **식량 시스템 붕괴:** 세계식량계획(WFP)과 IPCC 제6차 보고서(2022)는 지구 온도가 1.5°C 상승할 경우,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의 동시다발적 흉작(Multiple Breadbasket Failures)으로 인해 전 지구적 공급망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 **경제적 과부하:**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뮌헨리(Munich Re)에 따르면, 기후 재난으로 인한 미보험 손실액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경에는 탄소 감축 실패로 인한 피해 비용이 전 세계 GDP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여 국가 사회보장 시스템과 금융 시장이 마비되는 '기후 파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3. **도시 기능 마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상 고온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인프라 파괴가 도시의 물류, 치안, 의료 시스템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폴리크라이시스(Polycrisis, 다중위기)'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¹⁴ 인공지능(ASI)과 노동의 소외

1. **인공지능(ASI)의 등장 시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저서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 2029년에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고 2045년에 기술적 특이점이 올 것이라 예측했으나, 최근 생성형 AI의 비약적 발전으로 샘 올트먼(OpenAI CEO), 젠슨 황(NVIDIA CEO) 등 전문가들은 그 시점이 2030년 전후로 앞당겨질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2. **얕은 노동(Shallow Job)의 종말:** 옥스퍼드 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일자리의 약 47%가 자동화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했으며, 특히 반복적이고 지능 기반의 사무·전문직 노동이 가장 먼저 가치를 상실하는 '화이트칼라의 위기'를 예견했다.

- **인구 소멸이라는 사회적 파업:**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지금의 머니로직 안에서는 더 이상 생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청년 세대의 집단적 '사회적 파업'입니다. 2030년은 이 파국을 멈추고 생명 순환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전환의 골든타임입니다.¹⁵

이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는 고치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는 나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삶의 방향을 틀어 살림셀이라는 베이스캠프를 구축한다면, 2030년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문명으로 비상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3. **실존적 위험(Existential Risk):**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AI가 인간의 언어와 인지 체계를 해킹함으로써 '무용지물 계급(The Useless Class)'을 양산하고, 인류가 기술의 주도권을 잃은 채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사육된 존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¹⁵ **인구 소멸과 사회적 파업(Social Strike)**

1.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대한민국 통계청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이하(2024년 기준)로 전 세계 유례없는 속도의 인구 급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회현상을 넘어, 무한 경쟁과 이윤 극대화의 '머니로직' 시스템이 생명의 재생산이라는 기본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데이터이다.

2. **사회적 파업으로서의 저출산:** 경제학자 조앤 윌리엄스(Joan C. Williams)를 비롯한 석학들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극심한 미래 불안과 불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조용한 저항' 혹은 '집단적 파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는 더 이상 기존의 보상 체계로는 생명의 순환을 유도할 수 없다는 문명적 경고로 해석된다.

3. **2030 골든타임:** 인구학자들은 2030년을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부양비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인구 절벽'의 정점으로 예측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공동체의 자생적 회복력이 소멸하는 불가역적 단계에 진입하게 되므로, 생명 가치를 우선하는 '살림로직'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제3장] 가장 완벽한 안전판: 살림셀(Salim Cell)

: 대안의 공간이자 새로운 기회의 베이스캠프

- ✓ 개인은 취약하지만, 연결된 최소 단위는 강해집니다.
- ✓ 살림셀은 전기·식량·기술·문화가 부분 자립하는 구조입니다.
- ✓ 이 장에서는 왜 문명이 '고분자 구조'에서 '세포 구조'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 ✓ 이 구조적 전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 대응은 늘 사후 처방이 됩니다.

1. 살림셀(Salim Cell): 미래의 베이스캠프

인체의 건강이 개별 세포의 상태에 달려 있듯,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살림셀(Salim Cell)의 건강함에 달려 있습니다. 살림셀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니라, 생물학적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고 진화하는 원리를 고스란히 담아낸 문명의 생명 엔진입니다.

생존 안전망 (Downside Protection): 세포가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생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강력한 자기 보호와 에너지 생산 능력입니다. 살림셀은 이 원리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생존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견고한 사회적 세포막:** 세포막이 외부의 유해 물질은 차단하고 필수 영양분만 선택적으로 투과하여 내부를 보호하듯, 살림셀은 머니로직의 파괴적인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의 압력으로부터 개인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어벽이 됩니다.
- **에너지와 돌봄의 미토콘드리아¹⁶:** 세포 내부에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생성하여 생명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미토콘드리아처럼, 살림셀은 에너지 자립과 순환 경제를 통해 생존 주권을 확보합니다. 중앙집중식 자본 시스템이 멈추더라도, 살림셀 안에서는 밥을 짓고 서로를 돌보는 에너지가 끊이지 않기에 우리 삶이 바닥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¹⁶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세포 내에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ATP)를 생산하는 '세포의 발전소'이다. 본고에서는 거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각 개인과 공동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립하는 살림셀(Salim Cell)의 핵심 역량을 상징한다. 특히 미토콘드리아는 독자적인 DNA를 보유하고 자율적으로 복제한다는 점에서, 외부의 통제 없이 스스로 생존 주권을 지탱하며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는 살림가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의미한다.

성숙의 인큐베이터 (Upside Potential): 세포는 생존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설계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생명체를 진화시킵니다. 살림셀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개인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무르익게 하는 성숙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장르마스터의 고유한 DNA:** 세포 핵 속의 DNA 가 생명체의 고유한 형질을 결정하듯, 살림셀은 개인이 생계형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가치를 발견하게 돕습니다. 밥을 짓고, 이웃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며, 망가진 물건을 정성스레 고치는 사소한 실천들은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숙성되어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장르마스터(Genre Master)로 발현됩니다.
- **지구적 선을 피워내는 리보솜¹⁷:** 리보솜이 DNA 의 정보를 읽어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듯, 자신의 재능을 통해 공동체와 지구 전체를 이롭게 하는 지구적 선을 생산하는 살림가와 장르마스터의 삶터가 됩니다. 살림셀이라는 완벽한 배양 환경 속에서 창조된 이 가치들은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며, 인류 문명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려 성숙한 인류사회의 근간이 됩니다.

결국 살림셀은 머니로직에 매몰된 '성장 사회'에서 생명 가치가 중심이 되는 '성숙 사회'로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하나의 건강한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여 유기체 전체를 살려내듯, 대한민국에서 발아한 이 성숙의 인큐베이터는 전 세계로 복제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계한 살림셀이 지구 곳곳에 뿌리내릴 때, 인류는 비로소 작금의 다중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예측된 부품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저마다의 장르를 가진 살림가들이 연결되어 만드는 진정한 풍요의 시대입니다.

살림셀을 완성하는 세 가지 요소(The 3 Basics)

살림셀이 개인을 지키는 생존 안전망이 되고, 나아가 지구적 선을 창조하는 성숙의 인큐베이터(Maturity Incubator)¹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¹⁷ **리보솜(Ribosome):**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mRNA)를 읽어 생명체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합성하는 '단백질 제조 공장'이다. 살림로직의 관점에서는 살림가가 보유한 무형의 달란트(Talent)와 지혜를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나 창작물, 즉 장르(Genre)라는 실체로 변환해내는 실천적 동력을 의미한다. 세포가 리보솜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 생명을 유지하듯, 살림가 또한 일상의 수행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세상에 내놓으며 생명 사회의 풍요를 완성해가는 핵심 기구라 할 수 있다.

¹⁸ **성숙의 인큐베이터(Maturity Incubator):** 머니로직 기반의 '성장 사회'를 지나, 생명 가치와 윤리적 풍요를 지향하는 '성숙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생태적 토양인 살림셀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개인은 생존 주권을 확보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며, 시스템의 부속품이 아닌 자율적인 살림가(Salimist)로 거듭나게 된다. 즉, 살림셀은 위태로운 외부 환경으로부터 생명 주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문명의 주역들을 길러내는 핵심적인 사회적 보호막이자 도약대를 뜻한다.

- **ZERO Basic:** 에너지, 먹거리, 주거 등 삶에 필수적인 자원들이 셀 내부에서 자급되고, 순환되는 체계입니다. 머니로직의 외부 공급망이 끊겨도 삶의 기본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보장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추락하지 않는 생존 안전망을 제공하는 물리적 토대입니다.
- **Urban Basic:** 첨단 인프라와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도시의 편리함과 기술적 혜택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환경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생계의 고단함을 덜고 자신의 고유한 장르에 집중할 수 있는 성숙의 인큐베이터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 **Culture Basic:** 밥을 짓고 이웃을 돌보는 행위가 하나의 문화적 품격이 되는 상태입니다. 서로의 장르를 존중하고 연대하는 공동체 의식이 흐를 때, 살림셀 내부의 에너지는 비로소 지구적 선으로 승화됩니다.

우리 주변을 생존안전망으로 바꾸는 법 아직도 주말마다 마트에서 "1+1" 행사를 찾아다니십니까? 살림가는 마트를 가기 보다 베란다 텃밭에서 갖 단 상추를 뜯고, 창문에 붙인 태양광 패널이 만든 전기로 커피를 내립니다.



2015 년 밀라노 엑스포 독일관에서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어의 들판(Fields of Ideas)'이라는 주제 아래 전시된 것은 거창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일상의 플라스틱 상자를 활용한 '이동식 텃밭'과 '샐러드 백(Salad Bag)'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전시는 인류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빈 공간 어디서든 누구나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시민 개개인이 자급자족의 주체가 되는 '자율적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제가 지향하는 '살림로직'의 물리적 토대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실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네 구석구석이 이런 플라스틱 상자 텃밭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생존 주권을 되찾는 살림셀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것이 살림가의 삶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물가가 폭등해도, 살림가는 여유롭습니다. 남들이 "전기요금 올랐다"고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은 스마트폰으로 우리 집 발전량을 체크하며 미소 짓게 될 겁니다.

2. 제로 베이직(Zero Basic): 월급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물리적 토대

살림셀이 일반적인 전원주택이나 과거의 공동체 마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첨단 기술과 경제적 자립 위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그 기둥이 바로 '제로 베이직(Zero Basic)'입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환경 오늘날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생존 비용'입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세,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비, 그리고 치솟는 식비. 머니로직 사회에서 돈이 끊긴다는 것은 곧 전기와 수도, 식량이 끊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로 베이직은 이 공식을 깨뜨리는 혁명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외부 거대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의 필수 조건(에너지, 식량, 물)을 자립하여 기초 생활비용을 제로(0)에 가깝게 만든다."

(1) 에너지 독립: 태양을 수확하는 프로슈머 살림셀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송전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살림셀은 태양과 풍력, 수력을 이용한 발전이 기본입니다. 모든 지붕과 벽면은 그 자체로 발전소입니다. 창문에는 투명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햇빛을 전기로 바꿉니다. 마을 공터와 주차장 지붕에도 태양광 모듈이 빼곡히 들어섭니다.

여기서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기술이 등장합니다. 낮 동안 생산된 잉여 전력은 공용 ESS 에 저장됩니다. 또한 살림셀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들도 훌륭한 저장장치가 되어 필요할 때는 발전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AI 가 관리하는 VPP 시스템이 각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전기가 남는 집에서 부족한 집으로 전력을 보내주거나 저장된 전기를 방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기술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림셀이 스마트폰처럼 보급되기 시작하면 복잡한 기술은 터치하나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단위의 혁신으로 새로운 산업이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팔리게 되니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 렌즈나 다양한 부품, 소프트웨어가 함께 팔립니다. 카메라 수요는 엄청나게 줄었지만,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살림셀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되면 그 안에 ESS, VPP 와 같은 복잡한 기술은 부품으로 함께 팔리게 됩니다. 우리는 스위치 몇 개 조작으로 살림셀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확대될수록 살림셀의 버전도 빠르게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가격도 저렴해지겠죠. 무엇보다 기존의 산업이 살림셀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2) 식량 주권: 기후가 망가져도 채소는 자란다 우리 식탁이 기후와 유통망에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이 닥치면 돈이 있어도 신선한 채소를 구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요즘 과일이 예전 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대량생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역설적으로 당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할 대안은 밖에 태풍이 불거나 가뭄이 들어도 생산이 가능한 지산지소(地產地消)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살림셀 내부의 스마트팜과 아쿠아포닉스(Aquaponics)¹⁹ 시설에서는 365 일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공급원(물고기)이 자라납니다. 물고기의 배설물이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이 정화한 물이 다시 물고기 수조로 돌아가는 이 완벽한 순환 농법은 비료와 농약 값을 '0'으로 만듭니다. 주민들은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팜에서 갓 자란 상추를 뜯고, 수조에서 자란 물고기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폭력적인 가격 변동이나 공급 부족으로부터 내 삶을 지키는 전략적 비축기지(Zero Basic)입니다. 로컬 푸드로 식탁의 30%만 자급해도, 가계 경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3) 경제적 해방의 물리적 토대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전기요금 0 원, 난방비 0 원, 수도요금 절감, 식비 30~50% 절감. 표준형 살림셀(100 인 규모) 모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약 50 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월 50 만 원.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이 50 만 원의 절감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해고를 당해도 당장 굶어 죽을 공포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로 베이직은 우리를 유희매단 '돈의 사슬'을 끊어내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주는 경제적 해방의 물리적 토대입니다.

그 외에도 살림셀 내의 음식물쓰레기와 플라스틱 등을 가능한 한 살림셀 내에서 완벽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용을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길이며, 세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Zoom in]

해외 사례: 독일 펠트하임 (Feldheim) - "송전탑이 필요 없는 마을"

- **핵심 내용:** 베를린 남쪽의 작은 마을 펠트하임은 주민들이 돈을 모아 자체적인 풍력, 태양광 발전소와 독립 전력망(Grid)을 구축했습니다.
- **살림셀과의 연결:** 이 책에서 강조하는 '독립 운전(Islanding)'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독일 전역이 정전되어도 이 마을은 전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은 전기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전기를 팔아 배당금을 받습니다.
- **메시지:** "살림셀의 제로 베이직은 기술적 공상이 아니라, 이미 독일 시골 마을에서 10 년 넘게 증명된 현실입니다."

¹⁹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물고기 양식(Aquaculture)과 수경 재배(Hydroponics)를 결합하여, 버려지는 자원 없이 생태계의 원리로 식량을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농법이다. 물고기의 배설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은 그 물을 정화하여 다시 물고기에게 돌려주는 순환의 구조를 가진다.

국내 사례: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 "바람과 태양이 주는 월급"

- **핵심 내용:**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주민들이 채권 방식으로 참여하게 하여, 그 수익을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배당합니다. 인구가 줄던 섬마을에 연금을 받으러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 **살림셀과의 연결:** '살림자본주의'의 초기 모델입니다. 자연(공유 자산)을 이용한 수익이 외부 기업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3. 어반 베이직(Urban Basic): 숲속에서 실리콘밸리와 일하는 법

"무늬만 시골, 기능은 맨해튼".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주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화생활은 어떡하지?", "아프면 큰 병원은 어떻게 가?", "아이들 교육은?". 살림셀은 이 질문에 답합니다. 우리는 문명의 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반 베이직(Urban Basic)'입니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의 도시 기능을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통신망만 연결되면 웬만한 도시 기능은 내재화가 가능합니다.

(1) 초연결 인프라: 디지털 노마드의 천국 살림셀의 하늘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Starlink)²⁰ 저궤도 위성이 촘촘한 망을 형성하고, 땅에는 초고속 광통신망이 혈관처럼 연결됩니다. 이곳에서 기가급(Gbps) 초고속 인터넷은 마치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며 끊김 없이 흐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창밖으로는 지리산의 장엄한 사계절이 펼쳐지지만, 모니터 안에서는 뉴욕과 런던의 금융 시장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됩니다. 이러한 초연결 인프라가 전 세계 미개발 지역에 살림셀과 함께 보급된다면,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지구상 어디라도 고도화된 문명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의 다변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살림셀 모델을 통해 인프라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누구나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는 기술 민주화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머니로직의 압박을 넘어 살림셀의 자유로 기존의 '머니로직' 시스템 안에서는 여전히 출퇴근의 압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물리적 공간에 묶여 있어야만 보상을 받는 구조라면, 아무리 인프라가 좋아도 심리적인 구속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²⁰ **스타링크(Starlink):**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분산형 통신 인프라이다. 기존의 유선망이나 거대 통신 기지가 닿지 않는 오지나 격오지에서도 끊김 없는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살림가에게 살림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장르를 구축한 이들에게 일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 **자율적인 몰입:** 살림가는 억지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옥철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에 맞춰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선택적 대면:** 불필요한 관습적 회의는 사라집니다. 오직 깊은 공감과 협업이 필요한 핵심적인 미팅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그 외의 시간은 완벽하게 본인의 통제 아래 둡니다.
- **일과 삶의 유기적 결합:** 아침에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자신을 찾는 고객과 화상회의를 합니다.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 노동자들에게 살림셀은 가장 완벽한 오피스이자 삶터입니다.

자연의 평화로움과 도시의 연결성을 동시에 누리는 삶, 이것은 모든 현대인이 꿈꾸는 워라벨의 완성이자 살림셀이 선물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미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이 머니로직이 지배하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특히 살림셀 안에는 유사한 장르를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연극인 마을이나 예술인촌이 무너졌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술가들이 모여 창작에 몰두하려 했지만, 정작 기초 생활과 도시 기능이라는 현실의 파도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술만으로는 밥을 짓고 에너지를 얻으며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살림셀 구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 스마트 헬스케어와 교육: 공포에서 풍요로 "시골 가면 병원 못 가서 죽는다"는 공포도 옛말이 됩니다. 살림셀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포드(Pod)'가 일상의 수호자로 자리 잡습니다.

- **일상 속의 정밀 진단:**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AI가 안색과 체온을 체크하고, 스마트 변기는 소변을 분석해 실시간 건강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 **시공간을 초월한 의료:**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형병원의 전문의와 화상으로 연결되며, 처방된 약은 드론이 신속하게 배송합니다. 머지않아 원격 수술 시스템까지 도입되어, 거주지가 생존의 제약이 되지 않는 시대가 열립니다.

미래의 살림셀 헬스케어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생체 리듬을 자연의 질서와 동기화하는 생명 디자인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와 실시간 대사 데이터를 학습한 AI 가디언은 사용자의 감정과 활력 상태를 정밀하게 예측합니다. 이에 맞춰 그날 식단에 필요한 영양소를 배합하고, 마을 숲의 피톤치드 농도까지 조절하여 최적의 치유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곳에서 기술은 마치 숲의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이는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의미의 살림의료입니다. 거주지가 생존의 제약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명력을 극대화하는 기반이 되는 것, 그것이 살림셀이 지향하는 궁극의 풍요입니다.

입시 경쟁을 넘어 '살림가(Salimist)'를 키우는 교육 "대치동 학원을 못 보내 불안하다"는 걱정 또한 살림셀에서는 사라집니다.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맞춤형 스승인 'AI 튜터'가 함께합니다.

- **살아있는 교육:** AI 튜터는 아이의 학습 수준과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해 1:1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입시를 위한 죽은 공부가 아니라, AI 시대에 꼭 필요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합니다.
- **장르의 발견과 확장:** 학생이 특정 분야에 호기심을 보이면 AI 튜터는 깊이 있는 답변과 함께 그 탐구 과정을 리딩하여, 아이를 독보적인 살림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살림셀의 교육은 온라인의 AI 튜터를 넘어, 오프라인의 거대한 실험실로 변신한 대학과 연결됩니다. 과거의 대학이 전문가를 공급하는 머니로직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자기만의 장르를 실제 현실에서 구현하고 증명하는 오픈에어랩(Open Air Lab)이 됩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전 세계 전문가들과 홀로그램으로 토론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며, 서로 다른 장르를 가진 동료들과 협업하여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출합니다. 캠퍼스는 더 이상 졸업장을 따기 위해 머무는 정거장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신의 장르를 심화하고 공유하는 지능의 살림터이자 생태계로 거듭나게 됩니다.

수천만 개의 가치가 공존하는 풍요로운 사회 살림셀에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개인의 순수한 관심사가 하나의 장르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돈과 명예라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수백, 수천만 개의 고유한 장르가 탄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자본의 축적이 아닌 '가치의 확산과 공유'를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장르들이 주도하는 세상 이야말로 인류가 진입할 진정한 '풍요로운 사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경계해야 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기술이 곧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림셀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하인'처럼 작동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의 온기가 머무는 휴먼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서툰 어르신들을 위해 '살림 큐레이터'나 '디지털 튜터'가 기술과 인간 사이의 가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시간을 이웃과 눈을 맞추고 공감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기술 민주화를 완성해야 합니다.

4. 컬처 베이직(Culture Basic): '살림가(Salimist)의 연대'가 온다.

제로 베이직이 우리의 몸(생존)을 구하고, 어반 베이직이 우리의 머리(기능)를 채워준다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인 '컬처 베이직(Culture Basic)'은 우리의 영혼(의미)을 구원합니다.

가장 큰 오해 하나를 풀겠습니다. "공동체 마을? 매일 모여서 간섭 받는 거 딱 질색인데요." 동의합니다. 저도 싫습니다. 살림셀은 억지 춘향식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완벽하게 존중하되, 필요할 때만 느슨하게 연결되는 '세련된 깐플(개인 플레이)'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머니로직 사회의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입니다. 수천 명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철저하게 고립된 섬, 이것이 현대인의 초상입니다. 살림셀은 이 끊어진 관계망을 다시 잇되, 과거의 도덕 교과서 대신 **살림가들의 취향 공동체**라는 새로운 문법을 도입합니다.

1) 살림바(Salim Bar): 관계를 자산으로 만드는 신뢰의 언어

살림셀의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의 '살림바(Salim Bar)'²¹ 시스템입니다. 이는 이웃 간의 신뢰와 돌봄의 가치를 측정하여 자산으로 치환해 주는 '가치 인증 바우처'입니다.

- **순환하는 가치:** 은퇴한 할머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살림바'가 적립됩니다. 이 바우처는 고여 있으면 가치가 감소하는 휘발성 성격을 띠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가치가 줄어들기 전에 다른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됩니다.
- **평가와 분배의 기준:** 축적된 실적은 연말에 살림셀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개인의 살림기여지수(SCI)²²를 평가하는 정량적 지표가 됩니다. 돕고 사는 마음이 곧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살림바를 통한 가치 측정은 통제가 아닌 '인정'을 위한 수단입니다. 모든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 아래 기록하고 싶은 가치만을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데이터 주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살림셀은 '항상 함께'를 강요하는 피곤한 공동체가 아니라, 위기 시에만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관계를 완성하지 않은 채 열어두는 이 느슨한 연대가 오히려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고립을 막는 가장 세련된 방식이 될 것입니다.

²¹ **살림바(Salim Bar):** 살림셀(Salim Cell) 공동체 내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거래 바우처(Voucher)를 말한다. 살림바는 살림가들의 노동, 지혜, 자원 등을 투명하게 교환된 실적을 기록하는 신뢰의 매개체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살림가들이 서로의 달란트를 나누거나 공동체 자원을 이용할 때 사용된다. 이는 공동체 전체의 생명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고 분배되는지를 보여준다.

²² **살림기여지수(Salim Contribution Index):** 개별 살림셀(Salim Cell)이 공동체와 지구적 선(ESGG)을 위해 창출한 유무형의 가치를 정량화·정성화한 지표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명하게 기록되며, 이 지수는 살림바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평가되며 살림셀의 성과 지표가 된다.

2) 살림가들의 이합집산과 가치 극대화

살림셀의 진정한 가치는 **살림가들의 시너지**에서 나옵니다.

- **유연한 협업:** 이곳에는 필요에 따라 각자의 장르가 모이고 흩어지는 '이합집산'을 통해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 **독립적인 문화와 규칙:** 각 살림셀은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규칙을 유지합니다.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거주하는 살림가들의 성향에 맞는 최적의 자율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 **장르의 인큐베이터:** 다양한 장르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숙성되는 것은 살림셀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개인의 독창적인 관심사가 공동체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때, 인류 사회는 비로소 진정한 다양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3) 무너진 삶터의 복원

무엇보다 삶터가 안전할 때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살림셀은 바로 그 무너진 삶터를 복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고, 마을 청년이 삼촌이 되어주는 '공동 돌봄' 안에서 육아는 더 이상 고립된 전쟁이 아닙니다.

알을 낳은 새들이 혼자 날아가는 길은 위태롭지만,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거대한 기류를 만들 때 천적을 압도합니다. 살림셀은 각자도생의 차가운 전쟁터가 아닙니다. 당신의 슬픔이 공감으로 치유되고, 당신의 재능이 공동체의 자산이 되는 **신뢰의 삶터**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제로·어반·컬처 베이직)이 받치고 있는 살림셀은, 다중위기의 거친 파도 위에서 당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노아의 방주이자, 새로운 문명을 이끌 당신의 몸체입니다.

살림셀과 살림자본주의: 미래 지속가능 모델



[Zoom-In]

국내 사례: 칠곡군 매원마을의 기적, '모모스(므므흐스)'

: 버스가 하루 2번 다니는 시골, 연 10만 명이 찾아오는 살림셀이 되었다

- **상황:** 경북 칠곡군 매원마을은 인적 드문 전형적인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떠나고 빈집과 폐공장만 늘어가던 곳이었습니다.
- **핵심 내용:** 배민화 대표는 흥물로 방치된 마늘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수제 버거집을 열었습니다. 브랜드명 '모모스'는 '모든 날 매 순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단순한 식당이 아닌 행복을 생산하는 공간을 지향했습니다.
- **살림로직 적용 (Salim Logic):**
 1. **로컬 상생 (Eco-Logic):** 칠곡의 특산물인 흑마늘 진액으로 빵을 만들고,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2. **세대 통합 (Culture Basic):** "햄버거는 젊은 애들이나 먹는 것"이라는 편견을 깼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논일을 하다가 '새참'으로 햄버거를 드시러 오십니다. 키오스크 주문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눈을 맞추며 주문을 받아주는 '휴먼 터치'를 유지합니다.
 3. **관계 인구 창출:** 아무것도 없던 시골 마을에 이 버거집 하나를 보기 위해 연간 10만 명의 외지인이 찾아옵니다. 이들이 마을을 구경하고, 다른 농산물도 구매하면서 마을 전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사례: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핵심 내용:** 부모들이 돈을 모아 공동 육아 어린이집을 만들고, 마을 식당과 카페를 운영합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만나는 모든 어른을 별명으로 부르며 이모, 삼촌처럼 따릅니다.
- **살림셀과의 연결:** '공동 돌봄'의 한국형 모델입니다. 도시 속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도 '살림바(Salim Bar)' 와 같은 커뮤니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사례: 영국 토드모든 (Todmorden) - "먹을 수 있는 풍경(Incredible Edible)"

- **핵심 내용:** "남의 집 화단에 있는 상추를 따 먹어도 될까요?" 이 마을에서는 됩니다. 경찰서 앞마당에는 옥수수가, 기차역 화단에는 허브가 자랍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유 작물을 심고, 누구나 무료로 가져가 먹습니다.
- **살림셀과의 연결:** '살림 큐레이터' 와 '식량 주권' 이 결합된 사례입니다. 돈이 없어도 굶지 않는 마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축제가 되는 '컬처 베이직'의 정수입니다.

해외 사례: 일본 가미카쓰 (Kamikatsu) - "나뭇잎을 파는 할머니들"

- **핵심 내용:** 80 대 할머니들이 산에 떨어진 단풍잎과 은행잎을 주워 고급 요리 장식용으로 팝니다('이로도리' 사업). 할머니들은 태블릿 PC 로 주문을 확인하고 잎을 따러 산을 오릅니다. 덕분에 마을 노인 의료비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 **살림셀과의 연결:** 노인이 '돌봄의 대상(집)'이 아니라 '가치 창출의 주체(생산자)'가 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까지 챙기는 '성취'의 사례입니다.

5. 다양한 살림셀의 가능성

1) 대학의 재탄생: '스펙 공장'에서 '살림의 오픈랩'으로

오늘날의 대학은 머니로직의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자신의 자원을 개방하고 '살림의 오픈랩(Open Lab)'으로 전환된다면, 그 자체로 거대한 지식 기반의 살림셀이 될 수 있습니다.

- **살림셀 대학** 대학은 이미 에너지, 식량 공학, AI 기술 등 살림셀이 갖춰야 할 다양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연구실에 갇혀 있던 기술을 캠퍼스라는 물리적 공간에 적용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 그리고 필요한 모두에게 오픈 된 살림셀로 전환해서 살림가와 장르마스터의 살림 오픈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살림가 육성:** 정해진 학과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전문가 양성 교육은 끝났습니다. 대학은 이제 학생들이 일상의 수행 속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를 AI 와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장르를 구축할 수 있는 살림가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대학은 이들의 잠재력을 무한히 열어주는 비상의 활주로가 됩니다.

- **생존 안전망(Downside Protection) 기능:** 대학이 담장을 허물고 지역 공동체와 결합할 때, 대학은 지역 전체의 생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인프라가 됩니다. 대학의 유희 부지와 기술력이 지역 주민의 살림과 연결되는 순간, 대학은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의 생명을 보살피는 최후의 지성적 요새로 기능하게 됩니다.

2) 군부대의 진화: '소비형 주둔지'에서 '자율적 생존 요새'로

살림셀은 위기 대응이 필수적인 군부대일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지금까지의 군부대가 국가의 거대 보급망에 의존하는 '에너지 소비처'였다면, 살림셀로 변신한 군부대는 외부 시스템의 마비 속에서도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전략적 자급 요새'로 거듭납니다.

- **생존 안전망(Downside Protection) 기능:** 국가 전력망이 붕괴하거나 보급로가 차단되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도, 살림셀 모델을 적용한 부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독립 전력망(Microgrid)과 스마트팜을 통해 생존 필수 자원을 스스로 생산합니다.
- **회복탄력성의 극대화:**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 몸의 세포처럼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돌보는 분산형 자립 구조를 갖춥니다.
- **살림가 육성:** 군 부대가 살림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자신만의 장르를 발견하는 '인생의 오픈랩'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짓고, 장비를 고치고, 동료와 연대하는 군 생활의 일상은 살림가들이 갖춰야 할 최고의 수행 과정입니다. 군에서 익힌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AI 와 결합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장르로 발전시킨다면, 전역 후 이들은 사회를 살려내는 독보적인 **살림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 **국가 안보의 안정:** 군부대가 살림셀로 전환되면, 국가 안보 하부구조는 강력해집니다. 군부대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부하를 경감시켜 줍니다. 위기 시에는 주변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민·군 공생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수행합니다.
- **ESGG 의 실천:** 지배와 약탈이 아닌, 생명을 지키고 지구적 선(ESGG)을 추구하는 군의 본질적 가치를 살림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재정립합니다.

3) 아파트와 마을의 대전환: '소비의 섬'에서 '공생의 살림셀'로

현재의 아파트 단지과 지역 마을은 머니로직의 전형적인 결과물입니다. 담장을 높게 쌓고 각자도생하며, 외부 공급망이 끊기면 즉시 마비되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살림셀로 전환되면, 주민들은 '관리비 내는 입주인'에서 '삶을 경영하는 살림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 **마이크로그리드 기반의 자립:** 아파트 옥상과 벽면 그리고 주차장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단지 내 대용량 배터리를 갖춰 외부 전력이 끊겨도 엘리베이터와 기초 가전이 돌아가는 '**에너지 자립형 요새**'를 만듭니다.
- **공유 생존 가게:** 단지 내 유휴 공간을 스마트팜이나 수선소로 전환합니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생활 안전망**'을 확보합니다.
- **자원 순환:** 자원은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처리될 때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멀리 보내는 순간 이동을 위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탄소가 배출되는 머니로직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살림셀 내부에서 즉시 순환시키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경제적입니다.
- **생태 마을:** 살림가들은 마을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지역 고유의 색채를 담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장르를 갖춘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살림셀 커뮤니티: '감시와 단절'에서 '느슨하고 단단한 신뢰'로 아파트와 마을이 살림셀이 된다는 것은 관계의 온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 **최소한의 신뢰망:** "위기 때 서로를 외면하지 말자"는 약속 아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달란트를 나누는 느슨한 연대가 형성됩니다.
- **살림기여지수(SCI)의 현장:** 이웃을 돕고 마을을 살리는 모든 활동이 데이터로 기록되어 자산화되는 '**살림자본주의의 실험실**'이 됩니다.

6. 새로운 사회계약: 정부, 기업 그리고 살림셀

국가의 짐을 덜어주는 '분산형 거버넌스' 이제 국가와 살림셀의 관계는 국가를 **항공모함**이라고 한다면, 살림셀은 그 주변을 촘촘히 에워싸고 호위하는 수천 척의 **고속정 함대**입니다.

항공모함(국가)은 거친 파도를 헤치며 멀리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고속정(살림셀)들은 항공모함이 놓칠 수 있는 틈새를 메우고, 기동성 있게 움직이며 각자의 위치를 사수합니다. 고속정들이 든든하게 받쳐줄 때 항공모함은 마음 놓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외교와 국방, 거대 인프라(고속도로, 통신망)를 책임집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각자 **살림셀**이라는 날렵한 고속정을 타고 항공모함 주변을 호위하며 함께 항해합니다.

역할 분담: 보완성의 원칙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이 새로운 계약의 핵심은 **철저한 역할 분담**입니다. 이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인 '**보완성의 원칙(Subsidiarity)**'과 맥을 같이 합니다. 보완성의 원칙이란,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살림셀)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거대

권력(국가)이 빼앗아서 안 되며, 국가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영역만을 보완(Support)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 **살림셀의 역할 (The Last Mile):** 에너지 생산, 식량 자급, 생활 폐기물 처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고독사 방지나 아이 돌봄 같은 '모세혈관' 수준의 복지를 이웃끼리 해결합니다.
- **국가의 역할 (The Backbone):** 살림트로피가 거래될 수 있는 살림거래소를 만들고, 초고속 통신망과 전력망의 '간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살림셀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 재난 시에만 개입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는 살림셀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도움으로써, 가장 낮은 곳의 자율성과 가장 높은 곳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협치(Governance)'의 완성입니다.

살림셀: '살림로직'을 구현하는 법인격

자본주의는 주식회사가 근간을 이루었듯이 살림자본주의는 살림셀이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살림셀은 생존 철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현실에서 구동하기 위한 '법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법적 실체가 있어야 은행 통장을 만들고,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기업과 탄소 배출권 거래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연한 법적 그릇 살림셀은 상황에 따라 최적의 법적 형태를 선택합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1인 1표의 의결권으로 지역 공헌을 우선시하는 가장 권장되는 모델입니다.
- **사단/재단법인:** 교육이나 기금 운용 등 공익적 목적과 문화 확산에 적합합니다.
- **마을기업/영농조합:** 농촌형 살림셀의 수익 사업과 공동체 활동 병행에 유리합니다.
- **소셜 벤처:** 빠른 투자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도시형 기술 기반 살림셀에 적합합니다.

같은 비슷해도 속은 다른 운영 방식 살림셀은 행정적으로는 기존 법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지만, 운영의 목표와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 **이중 장부 시스템:** 세무용 '금전 장부'와 블록체인 기반의 '가치 장부'를 함께 운영합니다.
- **목표의 전환:** 영업이익 대신 탄소 감축량과 돌봄 지수를 이사회 핵심 지표로 삼습니다.
- **배당의 차이:**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대신, 기여자에게 '살림트로피'와 '바우처'를 배당합니다.

결국 살림셀은 기존 법체계의 안정성을 활용하되, 그 내용물을 '돈'에서 '살림'으로 채우는 전략입니다. 이는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에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트로이의 목마' 전략입니다. 마음 맞는 5명만 모여 법적인 그릇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살림셀 건립의 첫 번째 벽돌입니다.

★ 나를 위한 짧은 질문 (To-think)

- 지금 전기와 통신이 72 시간 끊기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 내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에너지? 식량? 기술? 관계?)
- 나는 최소 3명 이상의 신뢰망을 갖고 있는가?
- 나는 시스템 속 개인인가, 생존 단위의 구성원인가?
- 1년 안에 내가 만들 수 있는 '미니 살림 구조'는 무엇인가?

[Special Insight] 왜 '살림셀인가? 고분자 사회의 붕괴와 세포 사회의 탄생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살림(Salim)과 셀(Cell)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조합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너져가는 현대 문명을 대체할 인류의 오래된 지혜와 가장 진화된 과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1. 폴리머(Polymer) 사회: 거대 시스템은 왜 한순간에 부러지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화학적으로 비유하면 원자와 같은 인간들이 거대한 사슬처럼 얽혀 있는 고분자, 즉 폴리머(Polymer) 사회와 같습니다.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구조는 평상시에는 매우 단단하고 효율적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똑 부러지며, 한번 파괴되면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머니로직 사회가 딱 그렇습니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성만 따질 때는 완벽해 보이지만, 팬데믹이나 전쟁 같은 충격이 오면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시스템의 한 고리만 끊겨도 전체가 마비되며, 그 안의 개인은 스스로 생존할 능력을 잃고 시스템과 함께 침몰합니다. 이것이 고분자 사회가 가진 구조적 비극입니다.

2. 셀(Cell) 사회: 스스로 치유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생명의 원리

우리가 '셀(Cell)'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는 작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생명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자율과 독립:**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경계를 통해 외부와 구분되면서도, 그 자체로 에너지를 만들고(대사) 정보를 교환하며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 **유기적 연결:** 세포는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다친다고 해서 전체 유기체가 죽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 세포들이 협력하여 상처를 메웁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살림셀(Salim Cell)**은 이 생명의 원리를 사회 구조에 그대로 이식하자는 제안입니다. 거대 시스템에 명줄을 맡긴 고분자 구조를 버리고, 각자가 생존 주권을 가진 자율적인 세포가 되어 거대한 생명체 사회를 이루는 대전환입니다

[제4장] 생존 주권을 되찾는 20일의 마이크로 실험

- ✓ 전환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실험에서 시작됩니다.
- ✓ 이 장은 이론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 ✓ 20 일 동안 소비, 관계, 에너지 사용을 점검하며 '살림형 삶'의 가능성을 체험합니다.
- ✓ 직접 해 봐야 변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용입니까, 우주의 서사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머니로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숫자로 평가받고, 효율로 측정되며,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비용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다중위기는 시스템의 종말이 아니라, 당신이 시스템의 부품이기를 거부하고 생태계의 주권자로 거듭나라는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 **머니로직의 종말:**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쌓여가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 **살림가의 탄생:** 이제 우리는 노동자에서 살림가로 진화해야 합니다. 살림가는 세상을 지배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을 살려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풍요를 누립니다.
- **20일간의 항해:** 이 과정은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몸에 박힌 머니로직의 파편들을 제거하고, 살림가의 감각을 회복하는 실천적 수행입니다.

머니로직 이후, 정체성을 재정의한 세 사람의 기록

문명 전환은 정책 이전에 개인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머니로직의 부품이기를 거부하고 삶의 주권을 되찾은 세 사람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1. 임원 A씨(52세): '조직의 효율'에서 '삶의 기반'으로

- Before: 25년간 대기업 전략기획을 담당하며 높은 연봉과 지위를 누렸으나, 구조조정 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정체성 공백에 직면했습니다.
- 실험: 20일간 직접 밥을 짓고 집을 수리하며 '내가 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존의 감각을 회복했습니다.
- After: 과거의 전략 능력을 분산형 인프라 설계에 접목하여, '퇴직 임원'이 아닌 '지역 살림 인프라 설계자'로 재정의되었습니다.

2. 팀장 B씨(34세): '비용 절감'에서 '생명 순환'으로

- Before: AI 자동화로 효율을 높였지만 정작 감원대상이라는 역설적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 실험: 주말 텃밭을 통해 '효율은 숫자를 개선하지만, 순환은 생명을 유지한다'는 진리를 체득했습니다.
- After: 자동화로 절감된 비용을 지역 자립 프로젝트와 연결하는 ESG 전략을 제안하며, 조직 내에서 '순환 모델 설계자'로 거듭났습니다.

3. 청년 C씨(27세): '낙오자'에서 '살림가'로

- Before: AI 확산으로 준비하던 전문직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스스로를 '낙오자'라 비관했습니다.
- 실험: 우연히 시작한 목공 수행을 통해 "나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After: 손의 감각과 서사가 담긴 제품을 살림셀 네트워크와 공유하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업(Deep Job)'을 발견했습니다.

살림가로 향하는 첫 질문

이제 당신의 명함에서 직함과 숫자를 지워보십시오.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이 부여한 이름이 아닌, 당신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1주차 | Story (스토리): 나를 가둔 프레임을 깨고 생태계와 조우하기

머니로직은 인간을 노동력이라는 비용으로 환산합니다. 비용은 효율이 떨어지면 언제든 폐기될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반면 살림로직에서 인간은 고유한 이야기를 가진 우주의 서사 그 자체입니다. 1주치의 핵심은 나를 시스템의 부품으로 보던 낡은 시각을 거두고,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며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나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Day 1. 머니로직의 문장 지우기: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버립니다. 대신 "나는 오늘 어떤 생명을 살렸는가?"로 하루를 기록하며 자본이 매긴 몸값에서 벗어납니다.

Day 2. 무지의 자각: 내가 먹는 음식과 쓰는 물건의 생태적 근원을 추적합니다. 1조 종의 생명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점령군이었는지 직시하는 것이 스토리 재구성의 시작입니다.

Day 3. 긍정적 서사 쓰기: 기후 위기와 다중위기를 파국이 아닌 새로운 문명으로의 초대로 재해석(Reframing)합니다. 나를 고립된 존재가 아닌 순환하는 에너지의 일부로 정의합니다.

Day 4. 나만의 장르 발견: 돈이 되지 않아도 멈출 수 없는 행위를 찾아내고, 그것에 살림이라는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것이 살림가로서의 고유한 브랜드의 시작입니다.

Day 5. 주간 정리: 시스템의 부품이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생태계의 살림가로서 나의 첫 번째 서사를 세상에 선언합니다.

[사례: 지구를 향한 살림가의 여정]

필자는 1998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난국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아래아한글을 지켜낸 한글 과컴퓨터 대표이사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머니로직의 관점은 효율이 떨어진 결과물을 폐기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필자는 그것을 지켜내야 할 우리 문화의 생명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나를 얼마짜리 경영인으로 증명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살려낼 것인가라는 살림의 질문에 응답한 첫 번째 서사였습니다.

그 이후 네띠앙의 실패와 10여 년간 이어진 수많은 창업과 도전은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인 부품으로 남기를 거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를 실패라 불렀을지 모르나, 필자에게는 계속되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치열한 고민은 집필을 하거나 강연을 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어졌고, 우연한 기회에 국회의원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라형 인재, 첨단자족도시, 조각탄소 이니셔티브, ESGG 등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파편화된 행보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는 미래에 대체 무엇을 하고 살게 될 것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답을 찾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명쾌한 답을 못 찾아 좌충우돌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이것은 전하진의 장르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멈출 수 없었던 이 도전들이 모여 이제 살림로직이라는 시대적 서사가 되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고, 남들에게는 좋은 자리도 없이 방황하고 사는 듯 보였을 지 몰라도 저는 후회하거나 힘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일이 포기할 수 없는 일종의 소명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고, 그냥 이 일에 몰두하는 것 자체가 삶에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이 일을 하게 될 때, 그 어떤 스트레스도 없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주차 | Empathy (공감): 파트너가 아닌 동료라는 각성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인맥이라는 자산으로, 자연을 자원이라는 재료로만 보았습니다. 이것이 머니로직이 우리 영혼에 주입한 독성입니다. 2주차에는 내 주변의 모든 존재로부터 돈의 안경을 벗겨냅니다. 타인을 내 이익을 위한 파트너가 아닌, 함께 우주를 유영하는 생명 동료로 대할 때 비로소 살림가의 진정한 공감 능력이 깨어납니다.

Day 6. 돈의 안경 벗기: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라는 계산을 의도적으로 멈춥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에 주파수를 맞추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Day 7. 종(種)을 넘어서는 관심: 베란다의 화초, 길가의 잡초, 길고양이와 눈을 맞춥니다. 그들의 생존이 곧 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상호 의존성을 깨닫습니다.

Day 8. 무조건적 환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소한 친절을 베풀어 봅니다. 계산이 사라진 자리에 생겨나는 순수한 연결의 기쁨을 몸소 체험합니다.

Day 9. 협업의 상상: 대화의 목적어를 바꿉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웃을 살릴까"를 고민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설계합니다.

Day 10. 주간 정리: 인간과 자연을 도구화 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호모엠포티쿠스(Homo Empathicus) 즉 공감하는 사람으로 거듭남을 확인합니다.

[사례: 자본 제로의 재단이 일궈낸 공감의 기적]

2021년 SDX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재단의 자산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머니로직의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빈자리는 곧 놀라운 에너지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SD)을 이루겠다는 진심 어린 비전에 수많은 재능기부자와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수백 명의 동료가 보여준 헌신 덕분에, 비로소 세상에 없던 개념들과 과제들이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영리기업을 경영해온 저에게 비영리 재단의 일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로가 이익을 나누는 파트너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지구적 선(ESGG)을 추구하는 '생명 동료'가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그 어떤 막대한 자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맥이 아닌, 가슴으로 연결된 동료들과 함께 세상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살림로직이 실현하는 진정한 공감의 힘이었던 겁니다. 교수, 기업인, 학생, 직장인, 예술가 등 다양한 직업의 동료들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기꺼이 내놓는 모습은 머니로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SDX재단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왜 수많은 비영리 기업들이 조용하지만 오랜 역사를 이어가는 지에 대해 새롭게 깨닫습니다. 살림가들이 모인 곳은 돈을 보고 모인 곳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수많은 비영리법인들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감의 동료들과 함께, 돈의 보호가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3주차 | Resilience (회복탄력성): 결핍을 즐기는 유연함

노동자는 시스템의 결핍을 가난이라 부르며 두려워하지만, 살림가는 이를 자립의 기회로 부르며 즐깁니다.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충격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위기를 동력 삼아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도약하는 능력입니다.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나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버퍼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Day 11. 불편함과과의 데이트: 의도적으로 문명의 이기 하나를 차단해 봅니다. 결핍의 상황이 나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만드는지 관찰하며 자생력을 확인합니다.

Day 12. 내면의 버퍼 확인: 외부 공급이 일시적으로 멈춰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연습합니다. 진정한 에너지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충만함에서 나옴을 깨닫습니다.

Day 13. 실패의 자산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는 대신,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상황을 새로운 길을 찾는 소중한 데이터로 전환합니다.

Day 14. 자발적 간소함: 더 많이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더 적게 소유하고도 더 풍요롭게 사는 살림가적 기술을 익힙니다. 소유의 무게를 줄일 때 회복력은 높아집니다.

Day 15. 주간 정리: 시스템의 파열음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회복 루트를 확정합니다.

[사례: 바닥에서 찾은 '0'의 자유]

필자는 네띠앙의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결핍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마주한 '자신감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라는 글귀는 제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한글과컴퓨터 시절의 화려함과 현재의 초라함을 비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두는 한, 현재의 나는 늘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준점을 현재로 옮기면, 제 삶은 그 순간 과거와 비교되지 않는 '제로(0)'가 됩니다.

이 '리셋'의 원리를 깨달은 뒤부터는 과거와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준점이 제로가 되니, 내 일은 오늘보다 단 1이라도 더 나은 '양(+)'의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가 부여한 가치기준이나 과거의 명성이나 미래의 목표를 버리고 내면의 평온을 선택한 이 간단한 생각의 변화가, 필자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진정한 자립의 힘이었습니다.

4주차 | Achievement (성취): 소유의 기쁨에서 존재의 충만으로

머니로직에서의 성취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소유의 확장입니다. 그러나 살림가의 성취는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살렸느냐는 존재의 확장입니다. 4주차에는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가짜 성취를 버리고, 내 안에서 차오르는 존재론적 만족감을 성취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습니다.

Day 16. 비교 없는 성취: 남보다 나은 결과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생명이 가까워진 변화를 스스로 축하합니다. 성취의 척도를 외부에서 내면으로 가져옵니다.

Day 17. Deep Job의 완성: 일주일간 몰입했던 나만의 작은 창조 행위가 이웃에게 기쁨이 되

는 순간을 만끽합니다. 나의 일이 수행이자 예술임을 발견합니다.

Day 18. 살림트로피 쌓기: 나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통장 잔고가 아닌, 연결된 생명들의 미소가 나의 진짜 자산임을 인식합니다.

Day 19. 살림가 선언: 20일간의 실험으로 바뀐 삶의 태도를 명문화합니다. 세상이 정해준 직함이 아닌, 내가 창조한 장르로 살갓음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Day 20. 최종 정리: 돈의 보호를 갈구하던 약자에서, 세상을 살리고 풍요롭게 만드는 주권자로서 진화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사례: 직함 없는 명함이 지켜준 나의 영혼]

필자는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를 거쳐 네띠앙에서의 큰 실패, 그리고 이어진 수많은 도전 속에서 거의 매년 새로운 명함을 파야 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비즈엘리트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출간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주 바뀌는 직함 뒤에 숨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제 프로필 사진과 이름, 연락처만 덩그러니 놓인 이른바 직함 없는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난 18년 동안 명함 뒷면의 이력은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앞면의 '인간 전하진'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명함 속 사진이 실물보다 젊은 캐릭터처럼 변해버렸지만, 이 명함은 제가 저만의 장르를 지켜온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끊임없는 실패와 도전 속에서도 직함이라는 껍데기가 아닌, 제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알맹이에 집중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머니로직이 부여한 숫자가 아닌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는 고집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 시스템의 붕괴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멸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직함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당신이 일관되게 쌓아온 삶의 장르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진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당신이 곧 생태계입니다

[의미: 결핍에서 풍요로]

20일 전, 당신은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아래 시스템의 부품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려낸 생명들과 그들 사이의 단단한 연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에필로그는 교육의 끝이 아니라, 살림가로서의 삶이 시작 되는 개막식입니다.

- **프레임의 해체:** 나를 가두었던 비용과 효율의 감옥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닌, 존재를 확장하는 서사가 됩니다.
- **주권의 회복:** 외부 시스템이 공급을 끊어도 당신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자립의 근육과 결핍을 축제로 만드는 창의성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 **살림의 연대:** 혼자서는 파편에 불과하지만, 살림셀이 창조하는 장르들은 거대한 생태계가 됩니다. 나의 풍요가 타인의 결핍을 채우고, 타인의 기쁨이 나의 성취가 되는 윤리적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살림가가 꿈꾸는 내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머니로직의 사람들은 높은 담장 안에서 문을 잠그고 공포에 떨지만, 살림가는 이웃의 안부를 묻고 촛불을 켵니다. 그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대지가 숨 쉬는 소리를 듣고, 내일 아침 돌아날 새순을 상상합니다. 위기는 그에게 파국이 아니라, 낡은 것이 가고 새것이 오는 필연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하게 길을 내는 리더입니다.

살림가로의 도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머니로직의 수입을 종잣돈 삼아 살림가를 위한 도구를 하나씩 확보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30분을 'Deep Job' 탐색에 투자하거나 주말을 활용해 자립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 90이고, Deep Job이 10이겠지만, 당신이 살림가라는 확신이 들면 그 비율은 점차 바뀔 것입니다. deep Job으로 인해 꿈과 희망이 솟구치는 순간. 당신은 불안이 아닌 환호 속에 사표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전환입니다.

이미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예술가, 작가, 개발자, 그리고 기업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원치 않는 프로젝트나 생계를 위한 노동에 귀한 재능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초 생활이 완벽하게 안정된 '제로 베이직(Zero Basic)' 상태에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떻게 솟구칠지 상상해 보십시오. 결핍에 대한 공포와 부채의 사슬에서 해방될 때, 여러분의 달란트는 비로소 거침없이 발현될 것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모여 생존의 주권을 스스로 확보하는 베이스캠프를 만드십시오. 살림셀

은 물리적 공간보다 논리적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림가로 비상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살림셀과 살림자본주의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거대한 머니로직이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인식조차 바꾸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따라 도전할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그 길에 접어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씩 살림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어쩌면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우리를 떠밀어 남들보다 더 빠르게 그 길로 안내할 지 모릅니다. 그 때는 여러분이 순식간에 새로운 세상의 중심에 서 있게 될 지 모릅니다.

살림가의 다짐: ESGG를 향하여

나는 오늘부터 돈의 보호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도구가 되어, 지구적 윤리관(Ethical)으로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을 일구며, 지구적 선(Global Good)을 추구하는 살림가로 살 것을 선언합니다.

★ 나를 위한 짧은 질문 (To-think)

- 나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해방되는가?
- 나는 고장 난 것을 고쳐본 적이 최근 6개월 안에 있는가?
- 나는 돈과 무관하게 몰입한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인가?
- 나는 나를 비용으로 보는가, 가능성으로 보는가?
- 20일 안에 내가 실험할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인가?

[제5장] 새로운 부의 탄생: 살림자본주의

: AI가 대체할 수 없는 Deep Job, 그리고 부의 기회

- ✓ 직업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 ✓ 이 장에서는 의미·기술·공동체가 결합된 새로운 일의 형태를 제시합니다.
- ✓ AI와 자동화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 ✓ 이 질문을 피하면, 기존 일자리에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림가(Salimist)의 길을 걷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살림 사회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될 살림자본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거머쥔 기회는 무엇인지 탐색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위기 뒤에 늘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음을 증명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정부는 새로운 돌파구로 IT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500원짜리 주식은 불과 1년 반 만에 100배 넘게 치솟던 광풍의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비록 인터넷 버블이 꺼지는 진통을 겪었지만, 그때 뿌린 씨앗은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생태계가 되었고, 당시 변화를 읽었던 기업들은 오늘날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전환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하지만 이 파도를 타는 자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이 돌아올 것입니다.

머니로직이 저물고, 살림사회를 지탱할 살림자본주의는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장에서 다룬 내용은 어쩌면 지금으로선 대담한 상상력의 영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향후 5년 안에 이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이 길로 이동합니다.

저의 상상력이 미처 닿지 못한 공백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빈칸을 여러분의 달란트로 채우는 순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부의 물길이 열리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Deep Job: AI가 대체할 수 없는 가치 노동의 시작

공포가 아닌 해방: '기능'의 종말과 '수행'의 시작

당신이 배달 앱을 지우고 직접 칼을 들어 식재료를 손질할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창조주의 감각을 회복합니다. AI가 정답을 말할 때 당신은 질문을 던지고, 기계가 효율을 따질 때 당신은 공감을 선택하십시오. 이 반복적인 살림의 수행이 당신의 날개에 근육을 만들고, 결국 당신을 종력(돈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 AI에게 지시하거나, 지시를 받는 두 계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노동의 대체만 걱정했지만, 이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선망 받던 전문직들이 가장 먼저 붕괴의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2030 년경 인간을 초월한 인공지능(ASI)이 등장한다는 예고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적 특이점은 섬뜩합니다. AI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회귀적 추론'과 인간의 전유물이던 '감정 변수'까지 갖추게 된다면, 인간이 AI와 지능 대결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능과 정보를 무한 복제하는 초지능(AS)이 일상이 된 시대, 인간에게 '지능 기반의 얇은 노동(Shallow Job)'은 더 이상 생존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장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는 생존이 걸린 공포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절망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것인가?" 하지만 관점을 살짝 비틀어 봅시다. 이것은 '일자리의 소멸'이 아니라 '**기계적 노동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입니다.

냉정하게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행복했습니까? 남을 이기기 위해 밤새 공부하고, 연봉을 높이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아내지 않았습니까? AI는 바로 그 '고역'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서 '기능(Function)'을 가져가는 대신,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는 '인간성'을 회복할 시간을 돌려준다면 어떨겠습니까?

AI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정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AI는 무서운 경쟁자이겠지만, 질문을 던지는 살림가에게 AI는 최고의 비서이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내가 우리 마을에 맞는 흙 건축법을 상상하면, AI는 전 세계의 데이터를 뒤져 최적의 설계도를 그려냅니다. 지능으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대신 AI에게 무엇을 시킬지 결정하는 '안목'과 '맥락'을 키워야 합니다.

AI가 기능을 수행할 때, 당신은 의미를 부여하는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주는 기본소득에 기대어 게임이나 하며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미래를 유토피아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쓸모가 거세당한 디스토피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관점을 바꿔, '그 이후'를 상상해 봅시다. 거대한 전환기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업(Work)'은 '**Deep Job**'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한 개인의 고유한 삶의 궤적, 즉 자신만의 '장르'가 투영된 노동을 뜻합니다. 기계가 기능을 수행할 때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독창적인 서사가 곧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이 됩니다.

이제 직업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What)가 아니라, 그 일을 왜, 그리고 어떻게(Why & How) 하느냐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라는 질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답은 제외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머니로직의 대부분의 일에 적용되었던 답이니까요. 대신에 지구적 선이라는 방향을 향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 원장이 기계적으로 머리를 깎는 '컷트 기능인'이라면, 조만간 정교한 AI 로봇 팔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자존감 치유사'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AI 가 수조 개의 데이터를 학습해도 해 낼 수 없는 '인간적 연결'입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체 불가능한 Deep Job 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Deep Job 은 두 가지 축으로 지탱됩니다.

- **살림노동:** 밥을 짓고, 집을 고치고, 텃밭을 가꾸는 등 생존의 주권을 내 손끝으로 되찾아오는 '수행'을 통해 발현됩니다.
- **가치노동:** 공감, 창의, 윤리, 돌봄을 통해 이웃과 연결되고 지구적 선(ESGG)을 추구하는 '헌신'의 과정을 통해 숙성됩니다.

이러한 Deep Job 은 살림자본주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치화 되고, 활성화됩니다.

살림가는 이러한 Deep Job 을 반복하며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창적인 '**장르(Genre)**'를 만들어 갑니다. 오랜 숙성과정을 거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시점에, 비로소 **장르마스터**로 거듭나게 되며, 이들이 이룬 장르는 다른 장르와 집단지성을 형성하며, 윤리적 풍요사회의 기반이 됩니다.

결국 Deep Job 을 수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넘어, 자본의 숫자에 저당 잡혔던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의미를 스스로 되찾아오는 숭고한 여정입니다. 머니로직이 규정한 효율과 비용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손끝으로 생명을 살리는 살림노동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가치노동에 몰입할 때, 인간은 비로소 시스템의 부품이 아닌 우주의 서사를 지닌 주권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처럼 나만의 고유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지구적 선(ESGG)을 실천하는 일상의 모든 과정은, 기계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존재의 충만함을 완성해가는 가장 확실한 생존의 길이 됩니다

(2) Deep Job 을 위한 환경 조건

생존 주권의 확보: Zero Basic (심리적 안정망)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조건은 결핍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며 쫓기는 마음으로는 결코 '깊은' 몰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에너지 및 식량 자립:** 살림셀을 통해 주거, 에너지, 식량 등 기초 생활 비용이 '0'에 수렴하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 **탈(脫)머니로직:** 돈을 벌기 위해 내 시간을 팔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인간의 뇌는 비로소 효율성이 아닌 '의미'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적 서포트: AI 및 로봇의 비서화 (기능의 대행) 인간이 Deep Job(의미 부여, 공감, 창의)에 집중하려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Shallow Job(데이터 정리, 단순 조립, 행정 업무 등)은 기술이 대신해 주어야 합니다.

- **지능적 도구의 활용:** AI 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초안을 잡아주는 '비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물리적 노동의 자동화:** 로봇과 스마트 팜 시스템이 육체적인 고역을 대신함으로써, 인간에게 '사유하고 연결할 시간'을 벌어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인증 체계: 가치 평가 플랫폼 (보상의 가시화) Deep Job 은 당장 시장에서 현금으로 환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동이 헛된 수고가 아님을 증명하고 보상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 **살림트로피:** 이웃을 돌보고 지구적 선(ESGG)을 실천한 Deep Job 의 결과가 사회적 자산인 '살림 트로피'로 기록되고 유통되어야 합니다.
- **장르 인큐베이팅 커뮤니티:** 나의 독특한 수행이 '장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피드백을 주는 살림가들의 네트워크가 존재해야 합니다.

(3) Deep Job 의 시작: 부엌과 마당에서 되찾는 인간의 주권

고유한 장르는 거창한 기획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고,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일상의 디테일을 대하는 숭고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머니로직(Money Logic)'은 우리에게 끝없이 주문합니다.

"청소는 로봇에게, 요리는 배달로, 생각은 AI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더 많은 돈을 벌어라."

하지만 모든 것을 효율화하고 위임해 버린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능'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할 뿐입니다.

AI 가 최적의 영양소를 계산할 때, 우리는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는 정성을 담아야 하고, AI 가 효율적인 도시 설계를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집'의 의미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한국 불교의 거목 성철 스님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난해한 설법 대신 "3 천 배를 올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이라면 AI 가 8 만 대장경을 1 초 만에 요약하겠지만, 땀 흘리며 바닥에 이마를 대는 고통스러운 수행은 기계가 결코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스님은 그 단순한 반복 속에 나를 낮추고 세상을 모시는 '몸의 깨달음'이 있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서양의 중세 수도원 역시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를 모토로 삼았습니다. 여기서의 일은 거창한 저술이 아니라 마당 쓸기, 텃밭 가꾸기, 빵 반죽하기 같은 일상의 노동이었습니다. 세상이

잡일이라며 피하던 그 행위 속에 삶을 지탱하는 가장 거룩한 '살림(Salim)'의 원리가 숨어 있음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존 주권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요리하는 사람의 자존감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배달 앱을 누르는 것은 '소비'이지만, 내 손으로 밥을 짓는 것은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한 연구에서도 7 주간 요리를 배운 사람들의 우울감이 사라지고 활력이 높아진 이유를 '나를 먹여 살리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생존의 자신감을 되찾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부역으로 돌아가는 것은 잃어버린 나의 주권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자존감 수업'입니다. 청소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돌봄을 통해 마을의 성자가 되며, 텃밭에서 우주의 원리를 발견하는 사람들. 이들이 창조한 윤리적이고 독창적인 가치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아우라(Aura)가 되어 세상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Deep Job 은 바로 이러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숙성됩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AI 에게 맡기고, 우리는 가장 작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삶을 만듭니다. 홀로 마당을 쓰는 수행이 이웃의 마당과 이어질 때 골목의 문화가 되고, 서로를 살리고 지구를 구하는 위대한 파도가 됩니다. 남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Deep Job 의 실체이자 장르마스터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Special Insight] 일상의 재발견을 뒷받침하는 7가지 과학

살림셀에서 밥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이웃을 돕는 일은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 교육학은 이러한 일상의 행위가 인간의 잠재력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배달 앱을 지우고 빗자루를 드는 순간, 당신의 뇌와 인생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기적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1) [Brain] 손이 뇌를 깨운다: 지능의 재발견

생각은 책상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지성은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노력 주도 보상 회로 (Effort-Driven Reward Circuit):** 신경과학자 켈리 램버트(Kelly Lambert)는 인간의 뇌가 돈을 주고 결과를 살 때가 아니라, 직접 손을 움직여 물리적 결과를 만들어낼 때(요리, 청소 등)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도록 진화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소비는 우울을 부르지만, 살림은 뇌의 보상 회로를 켜는 항우울제입니다.
- **손의 사유 (The Craftsman):** 석학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은 "손으로 물질을 다루는 행위가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배관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경험은, 추상적인 지식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감각을 깨워 당신을 AI가 대체할 수 없는 '장인(Artisan)'으로 만듭니다.

- **신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와 DMN:** 단순 반복적인 살림 노동을 할 때 뇌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뇌과학자 마커스 라이클(Marcus Raichle)이 발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MN)²³가 활성화되어, 흩어진 정보를 통합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부화(Incubation) 시킵니다. 설거지는 뇌를 위한 최고의 명상 시간입니다.

2) [Self] 작은 승리가 나를 바꾼다: 자아의 회복

무기력은 학습된 것입니다. 반대로 유능감 역시 일상의 작은 승리들을 통해 학습됩니다.

-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Albert Bandura)는 효능감이 거창한 성공이 아닌 '작은 성취(Small Wins)'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방을 내 힘으로 깨끗이 치우는 즉각적인 성취 경험이 쌓일 때, 뇌는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 **자기 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심리학자 데시(Deci)와 라이언(Ryan)은 인간이 시켜서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할 때(자율성)'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증명했습니다. 생존 비용 걱정이 없는 살림셀은 실패해도 괜찮은 안전지대를 제공하여, 돈이 안 돼도 가슴 뛰는 일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3) [Growth] 일상이 곧 학교다: 창의성과 관계의 확장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실력은,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과 부대끼는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 **일상의 창의성 (Everyday Creativity):** 하버드 의대 루스 리처즈(Ruth Richards) 교수는 창의성이 천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활 속의 사소한 불편을 해결하는 과정, 즉 '일상의 창의성'이야말로 우리 뇌를 가장 활발하게 깨웁니다. 살림셀의 자립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문제 해결의 연속인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 **상황 학습 (Situated Learning):** 교육학자 진 레이브(Jean Lave)와 에티엔 벵거(Etienne Wenger)는 책상 위 암기보다, 공동체 속에서 이웃의 기술을 보고 배우는 '상황 학습'이 훨씬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교과서가 아닌, 이웃이 집을 고치는 걸 구경하고 돕는 과정에서(합법적 주변 참여), 우리는 학교에선 몰랐던 나의 적성과 Deep Job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Zoom In] 가치의 진정성을 증명하다: 트루밸류(TrueValue)

²³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DMN):** 뇌과학자 마커스 라이클(2001)이 발견한 신경 회로로, 멍하니 있거나 단순 반복 행동(설거지, 산책 등)을 할 때 활성화된다. 이때 뇌는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연결하는 '배경 처리'를 수행하여 창의적 영감을 부화시킨다. 이는 살림로직에서 강조하는 단순 살림 노동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가장 창의적인 시간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다.

살림가는 자신의 일상이 곧 최고의 콘텐츠이자 자산이 되는 시대를 삽니다. 하지만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지는 디지털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 살림의 가치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트루밸류**는 인위적인 홍보가 아닌, 살림가들의 진실한 활동 궤적을 데이터로 증명하여 신뢰 자본을 구축하는 살림 지능형 인증 플랫폼입니다.

1. 가짜 풍요를 넘어 '진짜 가치'의 시대로

머니로직은 숫자를 부풀려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마케팅 기술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루밸류는 살림가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Deep Job**의 진정성에 주목합니다.

- **데이터 필터링:** 단순한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적 선(ESGG)에 기여한 활동만을 정밀하게 추출합니다.
- **신뢰의 시각화:** 살림가가 쌓아온 고유한 서사와 실천의 기록을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2. 스펙이 아닌 '장르'를 인증하다

기존의 인증 제도가 학력이나 자격증 같은 낡은 훈장에 집착했다면, 트루밸류는 한 개인이 구축한 독보적인 장르(Genre)를 인증합니다.

- **장르마스터의 보증수표:** 특정 분야에서 오랜 시간 살림의 가치를 숙성시켜 온 장르마스터들의 숙련도와 진심을 데이터로 뒷받침합니다.
- **대체 불가능성 증명:**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적인 연결과 공감의 깊이를 측정하여, 해당 살림가가 왜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시장에 알립니다.

3. 살림트로피로 이어지는 신뢰의 가교

트루밸류에서 검증된 데이터는 살림자본주의의 핵심 자산인 **살림트로피**의 기초가 됩니다.

- **SCI 지수의 정교화:** 살림기여지수(SCI)를 산출할 때, 트루밸류의 인증 데이터는 가장 강력한 신뢰 가중치로 작용합니다.
- **자산화의 엔진:** 보이지 않는 윤리적 가치를 정량화하여 토큰 증권(STO)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신뢰의 연금술 역할을 수행합니다.

4. 존재의 증거가 곧 경제적 풍요로 트루밸류 플랫폼 안에서 살림가는 자신을 애써 증명하려고 굳은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 **효능감의 확인:** 자신의 작은 기여가 데이터로 기록되고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존재론적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 **윤리적 이익의 실현:** 진정성 있는 활동 기록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지표가 되어,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가 따르는 풍요의 방정식을 완성합니다.

2. 머니로직이 외면했던 괴짜들, 미래의 구원자가 되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직업은 더 이상 넥타이를 매고 빌딩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살림셀의 살림가들은 머니로직이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미물들 속에서 우주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살림 큐레이터 (Salim Curator): 마을의 잉여 자원과 부족한 필요를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윗집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아랫집 할머니가 전직 피아노 선생님이시네? 두 분을 연결해 드려야겠다." 이런 섬세한 관계의 조율은 AI 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따뜻한 오지랖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대가로 높은 SCI(살림기여지수)를 받고, 마을 공동체 기금에서 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커뮤니티가 활성화될수록 그들의 몸값은 올라갑니다.

케어 디자이너 (Care Designer): 단순히 환자의 기저귀를 가는 요양보호사가 아닙니다. 외로운 노인의 말벗이 되어주고,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해 자서전을 만들어주는 정서적 돌봄 전문가입니다. 감정이 없는 로봇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온기가 밥벌이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들의 돌봄 기록은 국가의 복지 데이터로 활용되며, 그 가치만큼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흙 레시피 설계자 (Soil Microbial Architect): 과거에 농부는 비료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살림가는 현미경을 들고 흙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는 흙 한 줌에 살고 있는 10 억 마리의 미생물과 대화합니다. 땅을 죽이는 화학 비료 대신, 특정 미생물을 배합해 탄소를 땅속에 가두고 작물의 면역력을 높이는 흙 레시피를 설계합니다. 그는 농부가 아니라 흙의 의사이자 지하 세계의 건축가입니다.

벌길 디자이너 (Bee Path Designer): 과거의 도시는 벌과 나비를 해충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벌길 디자이너는 다릅니다. 그는 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식량의 70%를 책임지는 수분 매개자들을 위해 도시의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아파트 베란다와 옥상, 자투리땅을 연결해 벌들이 끊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 고속도로를 놓습니다. 그는 삭막한 도시에 꽃과 새소리를 되찾아주는 생태계의 교통경찰입니다.

이종(異種) 간 통역사 (Interspecies Translator): 인간은 자연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숲이 비명을 지를 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통역사는 초미세 센서와 AI 를 이용해 식물과 토양이 보내는 신호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지금 참나무들이 목말라하고 있어요"라는 숲의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인간 중심의 회의에 자연의 대리인으로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업사이클링 연금술사 (Upcycling Alchemist) 과거의 고물상이나 재활용 센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버려지는 폐기물에 담긴 '데이터'와 '스토리'를 읽어냅니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 낡은 가구, 버려진 옷감을 조합해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품이나 실용적인 살림 도구로 재탄생시킵니다. 이들은 물건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막고, 그 과정에서 창출된 가치를 '살림 자산'으로 인정받는 미래형 장인입니다.

디지털 유산 관리인 (Digital Legacy Weaver) 살림가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가 됩니다. 이 관리인은 개인이 평생 축적한 달란트와 수행의 기록(텍스트, 영상, 살림 데이터)을 AI 와 협력하여 영구적인 디지털 유산으로 엮어냅니다. 한 살림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가 남긴 지혜와 장르가 후대 살림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신적 가업 계승자'입니다.

특별한 재주가 없다고 걱정하시나요 혹시 "나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반 사무직인데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십니까? Deep Job 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 **마케터 (Marketer) → 로컬 스토리텔러 (Local Storyteller)**
 - **Money Logic:**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과장된 광고 문구를 쓰고, 팔고 나면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 **Salim Logic:** 우리 마을에서 난 농작물이 어떤 땀방울로 자랐는지 이야기를 발굴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마음'을 연결합니다. 당신의 홍보 능력은 마을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확성기가 됩니다.
- **카페 사장님 → 커뮤니티 앵커 (Community Anchor)**
 - **Money Logic:** 회전율을 높여 커피를 한 잔이라도 더 파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미웠습니다.
 - **Salim Logic:** 우리 가게를 마을의 '사랑방'으로 정의합니다. 동네 청년들이 모여 작당 모의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내어주고, 지역 쌀로 빵을 굽습니다. 커피는 수단일 뿐, 당신은 고립된 이웃을 연결하는 마을의 앵커(Anchor)이자 플랫폼이 됩니다.
- **학원 강사 → 재능 코디네이터 (Talent Coordinator)**
 - **Money Logic:** 아이들에게 정답 찍는 기술을 가르치고, 성적이 떨어지면 불안해했습니다.
 - **Salim Logic:** 아이들이 무엇을 할 때 눈이 빛나는지 관찰합니다. AI 가 지식을 가르칠 때, 당신은 아이의 멘토가 되어 그 아이의 재능을 마을의 필요한 일과

연결해 줍니다. 당신은 성적 기술자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설계하는 '라이프 코치'입니다.

[Zoom In] 나의 달란트를 전 세계와 공유하다: Deep Job 플랫폼

살림가의 활동은 타인의 필요와 만나 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지만 많은 살림가들이 묻습니다. "나의 작은 재능을 누가 알아줄까요? 어떻게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며 Deep Job 의 지평을 넓히는 플랫폼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지태스크(EasyTask)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 얕은 노동(Shallow Job)에서 깊은 노동(Deep Job)으로의 가교

기존 플랫폼이 노동을 '시간 단위'로 잘라 파는 인력 시장이었다면, Deep Job 플랫폼은 개인이 가진 고유한 달란트(Talent)를 발굴하여 전 지구적 가치와 결합하는 살림 지능형 연결망입니다.

- **달란트의 파편화와 재조합:** 거창한 직함 대신, '데이터 속에서 맥락을 짚어내는 안목'이나 '글에 따뜻한 공감을 입히는 감수성'처럼 당신만이 가진 미세한 조각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살림셀의 필요와 맞물립니다.
- **단순 잡(Job)과의 차별점:** 기존 플랫폼은 당신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취급하지만, 이곳은 당신의 작은 조각이 전체의 맥락을 완성하는 '대체 불가능한 퍼즐'이 되게 합니다.
- **보편적 가치로의 진화:**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은 단순 기술 숙련을 넘어, 당신의 달란트가 인류 보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구적 선(ESGG)으로 진화하게 돕습니다.

2. 직무 중심(Job)에서 역량 조각(Talent Piece) 중심으로

기존 플랫폼은 '디자이너', '번역가' 같은 거창한 직함을 요구하며 당신을 통째로 빌리려 합니다. 하지만 살림 지능형 플랫폼은 당신의 능력을 아주 미세한 '조각' 단위로 나눕니다.

- **기존 방식:** "디자인할 사람 구함" → 당신은 수많은 디자이너 중 가격이 싼 한 명의 부품이 됩니다.
- **Deep Job 방식:** "이 원고의 맥락을 이해하고 따뜻한 공감을 줄 색감을 고를 사람" → 당신이 가진 '공감의 안목'이라는 아주 특수한 조각을 찾습니다. 이때 당신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의 '온도'를 결정하는 대체 불가능한 퍼즐 조각이 됩니다.

3. AI 비서가 설계하는 '나만의 수행 경로'

Deep Job 플랫폼은 AI 를 활용해 당신의 달란트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맥락을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 **맥락적 매칭:** 당신이 과거에 수행했던 작은 기록들을 데이터화하여, 당신의 성향과 1 조종의 생명체를 생각하는 윤리적 가치가 가장 잘 맞는 글로벌 프로젝트에 당신을 우선 배치합니다.
- **가치의 누적:** 한 번의 단순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맞춘 퍼즐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장르'로 숙성되도록 이력을 관리해 줍니다. 이 과정은 AI 가디언이 당신의 성장을 돕는 멘토 역할을 하며 가속화됩니다.

4. 실시간 가치 확인: 존재의 충만함이 숫자로 증명됨

단순 플랫폼은 입금 확인이 끝이지만, 살림 플랫폼은 당신의 기여가 세상을 어떻게 살렸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 **효능감의 가시화:** "당신이 정리한 데이터 덕분에 아프리카 살림셀의 식수 오염도가 15% 개선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대시보드에 뜹니다.
- **살림트로피 자산화:** 이 기여도는 즉시 살림가치로 환산되어 살림트로피라는 STO 자산으로 축적됩니다. 당신의 노동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가업으로 영구히 남는 것입니다.

살림가는 단순히 일감을 찾지 않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광장에서 전 세계 살림가와 교류하며 내면의 장르를 깨우고, 지구적 선(ESGG)을 실천합니다.

3. 살림자본주의, 자본의 욕망을 문명의 동력으로 전환하다

(1) 자본주의의 심장을 이식하는 거대한 설계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를 탐욕과 파괴의 근원이라 비판하며 이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배, 성장, 경쟁의 머니로직이 견고하게 뿌리내린 현실에서 기존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자본주의가 가진 폭발적인 에너지, 즉 이윤을 쫓아 움직이는 머니게임의 역동성입니다.

살림자본주의는 이 거대한 엔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연료와 목적지를 바꾸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야생마를 길들이려 애쓰기보다, 그 말의 고삐를 살림이라는 방향으로 틀어 주는 지혜입니다.

살림자본주의의 핵심 개념은 기존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이 거래소를 통해 머니게임을 하듯, 살림 거래소를 통해 살림트로피를 거래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아이템을 하나 더 늘려주자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착한 가치를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훈계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투자 본능을 살림이라는 가치에 결합하는 순간,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메커니즘 속에 어떻게 착한 가치가 온전히 거래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탄소배출권이 현재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와 인간을 살리는 실질적인 활동인 살림이 자산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살림자본주의는 이를 위해 살림셀이라는 구체적인 단위를 자본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개별적인 환경 보호 활동이나 소규모 공동체의 움직임이 자본시장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 가치를 측정하고 거래할 규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PC의 여러 부품들이 PC라는 하나의 구조를 만나 시장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림셀의 규격을 정의하고 이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산가들이 안심하고 베팅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탄소감축활동, 기후행동, 지속가능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그에 따른 기후테크들의 가치를 정량화 할 수 있게 됩니다.

(2) 가치의 규격화와 신뢰의 연금술: 살림바에서 트로피까지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기 위한 대전제는 객관적인 신뢰와 규격의 통일입니다. 살림자본주의는 살림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자본시장에서 즉시 유통 가능한 물리적, 데이터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교한 가치 증명 프로세스를 가동합니다.

그 출발점은 살림셀의 엄격한 규격화입니다. 살림셀은 에너지 자립률, 자원 순환 체계, 공동체 결속력이라는 살림로직의 핵심 축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스펙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반도체 칩이 표준 규격을 가질 때 전 세계 공급망에서 유통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표준을 충족하는 살림셀만이 비로소 시장에 진입할 자격을 얻습니다.

검증 단계	주요 기능 및 역할
MCI (Mini Carbon Initiative)	살림셀이 조각탄소감축량을 산출하여 조각탄소크레딧(MCC) 발행
살림바 (Salim Bar)	살림셀 내의 기여도를 검증하는 교환가치
SCI (Salim Contribution Index)	살림셀의 검증된 살림 성과에 대한 정량적 지표
살림트로피	SCI 데이터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STO(토큰증권) 형태로 발행된 최종 자산

(3) 실시간 가치 순환의 엔진: STO와 살림거래소

검증된 살림의 가치는 이제 '살림트로피'라는 구체적인 자산으로 형상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트로피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유동성을 완벽히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것이 바로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기술입니다.

살림트로피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어 분산 발행됩니다. 이는 거대한 살림셀 하나를 수만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소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거대 자본가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가치 투자 시장에 이제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하나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살림거래소의 운용 원리

- **분산 소유:** STO를 통해 살림트로피의 가치를 조각 투자하여 누구나 주주가 됨
- **실시간 거래:** 24시간 열려 있는 살림거래소에서 가치의 등락에 따라 실시간 매매
- **투명한 배당:** SCI 지수 상승에 따른 수익이 토큰 보유자에게 공정하게 분배

여기에 인문학적 감성을 더하는 것이 바로 '예술'의 결합입니다. SCI로 증명된 차가운 데이터 수치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예술적 영감과 결합하여 고유한 NFT 아트로 재탄생합니다. 투자자들은 숫자를 사는 동시에, 지구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서의 '작품'을 소장하게 됩니다. 소장 가치와 투자 가치가 완벽하게 결합된 이 모델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품격 있는 머니게임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4) 자본의 이동과 기술 기업의 낙수효과

살림거래소가 활성화되면 시장의 자본은 가장 효율적으로 살림의 가치를 생산하는 곳으로 무섭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돈의 냄새를 맡은 자본가들은 이제 어떤 살림셀이 가장 높은 SCI 지수를 기록할지, 어떤 살림셀이 가장 안정적인 살림바 운영을 보여줄지를 분석하며 경쟁적으로 베팅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물 경제에서 두 가지 강력한 투자 붐을 일으킵니다.

- **살림셀 후보군에 대한 선제적 투자:** 전 세계의 노후화된 공동체나 새로운 주거 단지들이 '살림셀'이라는 규격에 맞추어 리모델링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살림트로피 발행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며 이들 공동체에 초기 자본을 공급합니다.
- **살림 기술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 살림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조각탄 소기술(Mini Carbon Tech)이 필수적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 재생 에너지 그리드, 지능형 헬스케어, 자원 순환 솔루션을 보유한 기술 기업들은 살림셀이라는 거대한 수요처를 확보하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릅니다.

결국 살림자본주의는 기존의 머니게임이 가진 '파괴적 탐욕'을 '생산적 살림'으로 치유하는 과정입

니다. 자본가들이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경쟁할수록 역설적으로 지구 환경은 더 빠르게 회복되고, 인간의 존엄성은 더 단단하게 지켜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고도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비결입니다.

(5) 대전환의 완성: 점진적 그러나 혁신적인 문명 교체

살림자본주의가 구축한 이 정교한 머니게임의 최종 목적지는 결코 자본의 증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배, 성장, 경쟁의 머니로직에서 살림, 풍요, 윤리의 살림로직으로 우리 문명을 부드럽게 도약시키는 겁니다. 살림셀이라는 기본 단위가 자본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수록, 기존의 파괴적인 자본주의 체제는 스스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문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전환은 혁명과 같은 급격한 충동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 살림트로피를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이 모여 자연스럽게 세상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림자본주의가 가져올 미래 변화

- **개인의 변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지구를 살리는 가치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살림가(Salimist)로 진화
- **기업의 변화:** 환경 파괴를 통한 이익 창출이 불가능해지며, 살림셀 생태계의 솔루션 공급자로 재편
- **국가의 변화:** 국가의 하부구조가 자립기반과 회복력을 갖추게 되어 매우 안정적인 국가로 변화
- **지구의 변화:** 자본이 흐르는 곳마다 살림셀이 복제되어 탄소가 저감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자정 작용 가속화

결국 살림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탐욕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탐욕이 흐르는 물길을 돌려 풍요의 바다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항해술입니다. 살림트로피가 거래소에서 반짝이는 숫자로 치환될 때, 그 숫자의 이면에는 실제로 살아나는 숲과 깨끗해진 강, 그리고 다시 웃음을 되찾은 인간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인간을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 돈이 가진 강력한 에너지를 빌려와 지구상에 가장 아름답고 윤리적인 '살림의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살림로직이 제안하는 새로운 문명의 운영 체제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진정한 의미의 풍요입니다.

4. 살림가(Salimist)의 탄생과 윤리적 풍요의 시대

(1) 살림가, 소비자를 넘어 가치 투자자로

지금까지의 개인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수동적인 '소비자' 혹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림자본주의 위에서 개인은 '스스로를 살리는 자'이자 '지구를 살리는 주체인 살림가(Salimist)'로 변모합니다.

살림가는 살림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살림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이웃과 공동체 활동을 하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행위 하나하나가 살림가치로 환산되어, 내가 보유한 **살림트로피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풍요: 윤리와 이익의 일치

- **경제적 이익:** 일상의 살림 행위가 SCI 지수를 높여 자산 가치 상승과 배당으로 직결
- **심리적 풍요:** 나의 이익이 타인의 피해가 아닌, 지구의 회복과 직결된다는 자존감 회복
- **공동체적 자산:** 고립된 개인이 아닌, 살림셀이라는 든든한 안전망 속에서의 정서적 안정

돈을 벌기 위해 타인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곧 나의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이 되는 구조 속에서, 개인은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닌 **윤리적 풍요를 누리는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 살림가(Salimist)의 하루: 소비가 아닌 가치 생산의 삶

살림가에게 '집'은 살림셀의 구성 요소입니다. 살림가는 아침에 일어나 살림셀 대시보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 **실시간 가치 확인:** 밤사이 살림셀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공동체에서 생산된 유기농 작물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모든 수치는 실시간으로 SCI 지수에 반영되며, 살림가가 보유한 살림트로피의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 **윤리적 활동의 보상:** 이웃의 아이를 돌보거나, 마을의 공유 차량을 정비하는 등의 '살림 행위'는 살림셀 내의 살림바로 인정받습니다. 살림바 사용 실적은 향후 살림트로피 등 살림셀의 수익에서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머니로직에서의 '노동'과는 차원이 다른, 공동체적 기여가 곧 개인의 풍요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 **진정한 풍요의 체감:** 살림가는 더 이상 남보다 더 비싼 차를 타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속한 살림셀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지(ESGG)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안에서 보장되는 안전과 소속감에서 진정한 풍요를 느낍니다.

(3) 기업의 진화: 파괴적 성장에서 '살림 솔루션' 파트너로

기존의 기업들은 머니로직에 따라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을 착취해서라도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살림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살림셀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살림 파트너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업들이 ESGG 를 실천하는 방식은 이제 선언적인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으로 나타납니다.

- **기술의 목적지 변경:** 제품을 많이 팔아 폐기물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살림셀 내에서 자원이 무한히 순환되게 만드는 '순환 기술'에 집중합니다.
- **살림거래소와의 공생:**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탄소 저감 기술이 특정 살림셀에 도입되어 SCI 지수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해당 기업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살림거래소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합니다.
- **지구적 선(ESGG)의 실천:** 개별 기업의 비전이 전 지구적 문제 해결과 정비례하게 설계되어, 기업 활동 자체가 곧 윤리적인 지구적 선의 실천이 됩니다.

이제 기업가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는가"를 넘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림의 가치를 창출했는가"**로 평가받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파괴적인 기업에 머물지 않고, 살림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정직하고 유능한 기업들로 급격히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4) 기업의 생존 전략: 살림셀의 필수 파트너가 되다

이제 기업은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살림셀의 SCI 지수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느냐로 경쟁합니다. 과거의 대량 생산-대량 소비 모델을 고수하는 기업은 살림자본주의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기업:** 예를 들어, 세탁기 제조사는 이제 세탁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살림셀 내에서 물과 전기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완벽히 차단하는 '세탁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이 살림셀의 환경 지수를 높이면, 기업은 가치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 **투명한 ESGG 경영:** 기업의 모든 공급망은 블록체인으로 기록되어 살림가들에게 공개됩니다. 살림가들은 자신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윤리적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만을 선택합니다. 기업에게 윤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용 등급'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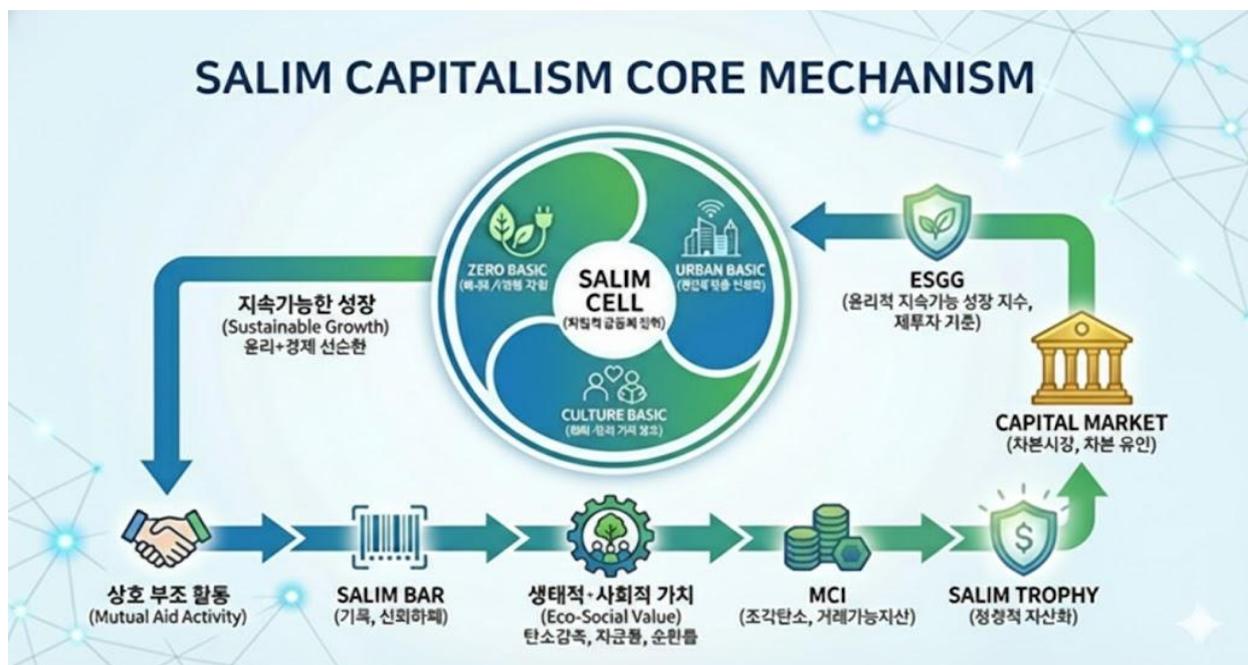
살림가와 기업이 맺는 이 새로운 계약 관계는 자본주의의 탐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지구적 선을 향해 분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살림로직이 실현하는 자본주의의 우아한 진화입니다.

기업은 살림가에게 최고의 삶의 질과 윤리적 가치를 제공하고, 살림가는 기업의 혁신을 응원하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지배, 성장, 경쟁의 머니로직은 이 거대한 살림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대신 살림, 풍요, 윤리의 살림로직이 머니로직의 엔진을 빌려 타면서, 마침내 우리 문명은 살림사회로 대전환을 완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

- **살림가:** 일상이 곧 가치 생산이며, 윤리가 곧 경제적 이득인 삶을 영위하는 자
- **기업:** 인류의 생존 주권을 지키는 기술을 통해 존경받으며, 풍요를 일구는 파트너
- **국가:** 생존 주권이 보장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플랫폼
- **문명:** 돈이 생명을 부양하고, 풍요가 윤리를 증명하는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



5. K-문명의 대전환, 대한민국이 살림셀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

(1) 왜 대한민국인가: 고난의 역사를 문명의 해답으로 승화시키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절대빈곤을 탈출하고 머니로직의 정점에 올라선 대한민국. 그러나 그 찬란한 영광의 이면에는 저출생, 양극화, 지역 소멸이라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위기'라 말하지만, 우리는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미래를 설계해 온 민족입니다.

머니로직의 정점에서 마주한 거대한 역설 대한민국은 지배와 성장, 그리고 끝없는 경쟁으로 대변되는 '머니로직'의 가장 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사람뿐이었고, 그 사람을 담보로 우리는 세계가 경악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승자독식의 경쟁은 우리를 숨 가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은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머니로직이라는 구시대의 운영체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전 지구적 경고음입니다.

'나의 확장'으로서의 우리, 그 위대한 DNA 우리가 이토록 짧은 시간에 머니로직의 독소를 견디며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만의 독특한 **우리의식**입니다. 이탈리아의 파말리아(Famiglia)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안주하고, 아프리카의 우분투(Ubuntu)가 외부의 힘에 의해 찢겨 나갈 때, 우리는 '나의 확장'으로서의 우리를 지켜냈습니다.

나의 성공이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며, 나아가 국가의 자부심이 되는 이 자발적 헌신의 에너지는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습니다. 금을 모으고, 기름을 닦아내며, 서로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정(情)'의 에너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생명을 내 몸처럼 돌보는 **살림**의 본능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문명의 해답으로 승화시키다 대한민국은 이제 머니로직의 파괴적 경쟁을 넘어, 살림, 풍요, 윤리의 살림로직으로 새로운 비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겪는 압축적인 고통은 역설적으로 가장 먼저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저력을 갖춘 것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설계하는 살림셀(Salim Cell)은 머니로직에 매몰되어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과 지구적 윤리(ESGG)를 회복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는 이제 전 인류가 맞닥뜨릴 다중위기를 돌파할 '생존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2) 신산업 생태계의 비상과 베이비붐 세대의 위대한 귀환

대한민국이 설계한 살림로직은 단순히 철학적 담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쇠퇴해가는 기존 산업의 틀을 깨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새로운 문명 산업을 주도하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살림셀의 싹틔움 전 세계 곳곳에 살림셀(Salim Cell)이 뿌리를 내릴 때마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그 곳을 살려낼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 그리드, 지구를 되살리는 환경 재생 기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정교한 케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살림셀이라는 표준 모델을 통해 전 세계 신산업 생태계를 살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수출을 넘어, 인류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수출하는 '문명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뜻합니다.

청년들의 꿈, 수백만 개의 고품격 '살림가' 일자리 이 거대한 생태계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살림셀의 운영과 확산을 책임지는 살림가(Salimist)와 자신만의 독창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장르마스터(Genre Master)는 AI 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영속적인 성장 동력은 바로 이 '사람을 살리는 기술'과 '생명을 돌보는 마음'이 결합한 새로운 직업군에서 나올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문명 전환의 숙련된 지휘자들 특히 이 거대한 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성장의 신화를 일궈낸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류가 경험한 모든 문명을 체험한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머니로직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해 본 경험과 동시에, 그 허망함과 한계를 몸소 체험하기도 했고, 또한 '우리 의식'을 생활에서 실천한 진정한 살림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는 단순한 은퇴자가 아니라, 살림로직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전수하는 '숙련된 지휘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들이 보유한 풍부한 현장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한 뜨거운 부채의식은 살림셀이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곳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을 미래를 살림사회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청년들의 열정과 함께 나선다면 살림셀은 인류의 생존 기본 단위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인류의 도약을 위해 던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저력으로 이제는 지구를 살리는 살림가가 됩시다. 그 위에서 우리 자식들이 마음껏 날아오를 것이며, 전 세계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명을 위해, 최빈국에서 태어나 글도 제대로 모를 초등학생 때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리는' 국민교육헌장을 그토록 달달 외웠던 것인지 모릅니다.

(3) 우리가 가진 필살기: 하이테크(High-Tech)와 하이터치(High-Touch)의 융합

하이테크(High-Tech): 도시를 PC 처럼, 거대 인프라의 개인화 살림셀의 기술적 본질은 거대 도시가 독점하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축소하여 개별 주거 단위로 이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핵심 기능을 PC(개인용 컴퓨터)에 담아내며 정보 혁명을 이끌었던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 **기술적 가교:** PC 가 스마트폰과 초고속 통신망, 나아가 현재의 AI 시대를 여는 징검다리가 되었듯, 살림셀은 인류가 시스템의 부품에서 생존의 주권자로 거듭나게 하는 핵심 디바이스가 됩니다.
- **초격차 제조 역량:** 우리 일상의 모든 요소를 살림셀 규격으로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통신, 배터리, 스마트 시티 기술력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정점에서 있습니다.
- **집적화의 달인:** 이 모든 첨단 기술을 하나의 독립된 생존 단위인 살림셀에 집약시키는 일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독보적인 분야입니다.

하이터치(High-Touch): K-컬처에 흐르는 지구적 살림 영성 살림셀은 단순한 하드웨어나 주거 공간을 넘어, 첨단 기술과 한국적 영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완벽한 문화상품입니다. 이는 인류의 새로운 삶을 가동하는 **문명의 운영체제(OS)**이자, 거친 위기 속에서도 생존을 담보하는 최고의 베이스캠프이며, 개인이 나만의 장르를 피워내는 성숙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오늘날 K-컬처가 전 세계를 매료시킨 저력의 바탕에는 타인의 생명을 내 몸처럼 돌보고 살려내려는 한국 고유의 **우리의식**이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러한 살림의 영성이 우리가 만들어 온 기술과 결합될 때, 살림셀은 전 세계가 직면한 다중위기를 돌파할 가장 매력적이고 강력한 문명 표준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 **지구적 선(ESGG)의 발현:** 전 세계인이 느끼는 문명적 갈증은 결국 "지구는 하나"라는 상호 의존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K-컬처를 통해 엿보이는 한국의 살림 문화는 개별화된 고립을 넘어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 **예술적 부가가치:** 살림셀 내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SCI)에 K-컬처 특유의 미적 감각과 감동을 입힐 때, 살림트로피는 전 세계인이 소장하고 싶어 하는 가치 자산으로 거듭납니다.
- **문명 표준의 수출:**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한국적 살림 영성이 담긴 새로운 삶의 양식인 K-살림셀을 전 세계에 문명 표준으로 제안합니다

(4) 글로벌 표준, K-살림셀: 지구를 살리는 새로운 가치 실크로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살림셀(Salim Cell)을 보급하는 것은 단순한 주거 단지 조성이나 기술 수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인류의 생존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는 '문명 운영 체제(OS)'의 수출입니다.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완벽한 생존 패키지를 제안함으로써 글로벌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릴 독보적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신뢰의 중재자, 문명 수출의 종주국 대한민국은 식민지 지배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지구상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개발도상국에는 강력한 동기부여와 신뢰를, 선진국에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살림셀은 서구의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상호 생존을 위한 '공존의 기술'이자 가장 매력적인 문명 모델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글로벌 살림금융의 허브: 머니로직을 넘어선 가치 패권 대한민국이 살림셀의 규격을 정하고 가치를 정량화하는 기준을 선점하면, 서울은 전 세계 살림트로피가 거래되는 '글로벌 살림금융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달러 중심의 머니로직 금융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적 선(ESGG)을 가치 척도로 삼는 새로운 금융 패권을 리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파괴에서 살림으로 돌려놓는 '가치 실크로드'의 설계자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브랜드의 진화: '메이드 인'에서 '살림 바이'로 과거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의미했다면, 앞으로의 '살림 바이 코리아(Salim by Korea)'는 지구를 살리고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가장 고결한 가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살림셀이 보급될 때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환경, 케어 기술 기업들이 그 기반을 닦게 되며, 이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수백만 개의 고품격 살림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5) 2030 골든타임: 대한민국, 문명의 종주국으로 비상해야

시스템의 대전환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2030 년은 머니로직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이자, 인류 문명의 생존을 결정짓는 최후의 마지노선입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이 5 년의 시간 안에 우리는 왜 살림로직으로 길을 틀어야만 할까요?

2030 년, 문명의 마지노선

- **기후 파산의 현실화:** 2030 년경 탄소 중립 실패에 따른 식량 공급망 붕괴와 도시 마비는 '돈으로 안전을 살 수 없는' 기후 파산 시대를 불러올 것입니다.
- **기술적 특이점의 역습:**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지능 기반의 '얕은 노동(Shallow Job)'을 무력화합니다. 지금 주권을 재정의하지 못하면 인류는 시스템에 사육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 **인구 소멸이라는 사회적 파업:** 대한민국 청년들의 초저출산은 머니로직 안에서는 더 이상 생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절박한 '집단적 파업'입니다. 2030 년은 이 파국을 멈추고 생명 순환의 사회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존 강대국들은 거대한 기득권과 복잡한 이해관계에 묶여 대전환을 향한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위기 앞에서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돌파구를 찾아내는 특유의 응축된 역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깃발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사멸을 막고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지능적인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된 우리의식을 지구촌 전체로 확장하여 세계를 품어 안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는 고치 속에서 비상하지 못한 채 말라 죽는 나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살림셀이라는 인류 문명의 베이스캠프를 구축한다면, 2030 년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문명으로 비상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은 무르익었고, K-컬처의 문화적 영향력은 정점에 달했으며, 시대의 대전환을 향한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지퍼 올린 이 살림의 불꽃이 전 지구를 덮어, 마침내 문명의 대전환이 완성되는 그날을
확신합니다

★ 나를 위한 짧은 질문 (To-think)

- 내 직업이 사라져도 나는 무엇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 내가 세상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가, 가치를 만들다 보니 돈이 따르는가?
- 나는 얕은 노동을 반복하는가, 깊은 일을 축적하는가?
- 3년 뒤, 나는 나만의 장르를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것인가?

[에필로그] 이제 당신이 문명의 새로운 항로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당신의 손끝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머니로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를 비판하지만, 사실 머니로직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우리의 근력을 키웠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지혜로운 지력을 단련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이 값진 토대를 닦아온 것은 바로 우리의 선배 세대입니다. 그들이 땀 흘려 일군 풍요와 기술적 성취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문명 전환을 논할 수 있는 여유와 지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단단해진 근력과 지력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숫자로 질주하던 성장은 이제 목적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더 이상 고치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배 세대가 물려준 그 단단한 힘을 가지고, 더 큰 생존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전환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질문은 이제 낡은 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맞이할 파국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환은 비용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들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존엄한 보험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고치를 찢고 나온 나비처럼, 당신의 등 뒤에는 살림이라는 위대한 날개가 돋아나 있습니다. 스스로 에너지와 식량을 다스리고, 돈의 중력을 이겨내며 지구적 선을 향해 날아오르는 살림가의 비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정치는 단순히 표를 계산하는 기계가 아니라, 이 고귀한 생명들의 비상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에너지 주권을 돌려주고, 소규모 자립 공동체가 숨 쉴 공간을 열어주십시오. 돈의 액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행위' 자체가 자산이 되는 가치 평가의 대전환에 이제는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신들을 가두었던 낡은 프레임을 이제는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혼란은 낙오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낳기 위한 숭고한 산통입니다. 선배 세대가 일군 지력을 자양분 삼아, 이제는 당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가진 장르마스터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결코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살림셀이라는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무대가 당신을 받쳐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친 폭풍우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배 밑바닥의 구멍을 메우며 지어 올린 살림셀은, 이 환란을 넘어 새로운 대륙으로 우리를 인도할 '노아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날이 와도, 당신의 몸에 새겨진 '일상의 근력'과 곁에 선 동료들의 온기는 영원히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완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건넌 다정한 인사 한마디, 베란다에 심은 작은 새순 하나가 이미 거대한 대전환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류는 늘 벼랑 끝에서 진화해왔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의미를 부여하는 안목'과 '공감하는 지능'이 헛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파국이 아닌 위대한 성숙의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그 첫걸음이 바로 인류의 새로운 항로입니다.

2026년 2월 어느 날

살림사회를 꿈꾸는 살림가, 전 하 진 드림

[부록] Deep Job 실천 가이드

: 살림셀이 오기 전,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법

- ✓ 이 부록은 읽는 부분이 아니라 직접 설계하는 공간입니다.
- ✓ 당신의 기술, 관계, 생활 구조를 점검하고 '살림형 전환'을 구체화합니다.
- ✓ 이 단계를 건너뛰면, 이 책은 생각으로만 남고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1. 미리보기: Deep Job 이 바꾼 세 사람의 하루

'Deep Job 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미래 일기를 통해 미리 엿보겠습니다.

CASE 1. 은퇴한 김 부장? 아니요, '마을 맥가이버'입니다. (60 대, 자원 순환 전문가)

- **Before (머니로직):** 대기업 부장 명함을 떼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등산도 하루 이틀이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울했습니다. 고장 난 선풍기는 그냥 버렸습니다.
- **After (살림로직):** 아파트 단지 내 '고쳐쓰기 센터'를 열었습니다. 버려진 가전제품을 수리해 이웃에게 나누고, 주말에는 아이들에게 '분해 조립 교실'을 엽니다.
- **Deep Job 성취:** 수리비 대신 받은 '살림 바우처'로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진짜 보상은 아이들이 건네는 "맥가이버 할아버지, 최고예요!"라는 한마디입니다. 그는 지금, 지구의 쓰레기를 줄이고 마을의 동심을 고치는 존경받는 기술자로 살고 있습니다.

CASE 2. 경단녀? 아니요, '케어 디자이너'입니다. (30 대, 돌봄 전문가)

- **Before (머니로직):** 아이 낳고 직장을 그만뒀을 때, 제 인생은 멈춘 줄 알았습니다. '누구 엄마'로만 불리는 게 싫었죠. 독박 육아에 지쳐 우울증이 올 지경이었습니다.
- **After (살림로직):** 동네 엄마들과 함께 '공동 육아 클럽'을 조직했습니다. 미대 나온 엄마는 미술을, 영양사 출신 엄마는 간식을 맡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성향을 분석해 딱 맞는 놀이를 기획하는 '케어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 **Deep Job 성취:** 그녀의 돌봄 활동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SCI(살림기여지수)로 인정받고, 이 점수로 가족의 의료비 혜택을 받습니다. 그녀는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위대한 교육자입니다.

CASE 3. 판교의 번아웃 개발자? 아니요, '마을 OS 아키텍트'입니다. (20 대, 디지털 노마드)

- **Before (머니로직):** 연봉 8 천만 원을 받는 판교의 3 년 차 개발자였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했지만, 저는 매일 밤새우며 카페인을 들이붓는 '코딩 기계' 같았습니다. 내가 만든 앱이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데 쓰인다는 자괴감, 그리고 닭장 같은 오피스텔에서의 고립감 때문에 결국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After (살림로직):** 노트북 하나 들고 살림셀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마을 OS 아키텍트'로 불립니다. 우리 마을의 태양광 발전량을 모니터링하는 앱을 만들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디지털 튜터'로 일합니다.
- **Deep Job 성취:** 제가 만든 앱 덕분에 마을의 에너지 효율이 20%나 올랐습니다. 이 실적은 고스란히 저의 SCI 소득이 됩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들이 "선생님 덕분에 나도 햄버거 주문할 수 있어"라며 제 손을 잡아주실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코딩하는 시간은 하루 4 시간뿐. 나머지 시간은 숲을 걷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워라밸'을 찾았습니다.

위기를 재해석하는 '관점 전환' 훈련

[현실 예시: 실직 통보를 받았을 때]

- **머니로직형 반응:** "나는 망했다. 이제 수입이 끊기면 대출금은 어떡하고, 남들은 나를 패배자로 보겠지." (절망의 스토리)
- **SERA 형 반응:** "드디어 쳇바퀴에서 내려올 기회가 왔다. 그동안 회사 때문에 미뤄왔던 목공 기술을 배울 시간이 생겼다. 이것은 실직이 아니라, 내 인생 2 막을 위한 '안식년'의 시작이다." (희망의 스토리)

[실전 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쓰기] 하루에 한 번, 가장 짜증 났던 일을 적고 접속사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붙여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 (상황) "오늘 폭설이 내려 차가 막히고 지각을 했다."
- (재해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운전하는 동안 평소 못 듣던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
- 이 훈련을 3 주만 지속하면, 뇌는 자동적으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회로를 생성합니다.

2. 나의 실천: 나를 '살림형 인간'으로 바꾸는 3 단계 미션

살림셀에 입주하기 전, 내 몸과 마음에 머니로직의 때를 벗겨내고 SERA 형 인재로 거듭나는 훈련입니다.

- **1 단계: 내 삶의 거품 빼기**

- **베란다 발전소 짓기:** 지자체 지원을 받아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보세요. 계량기가 거꾸로 도는 것을 보며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감각을 바꿉니다.
- **한 평 텃밭 가꾸기:** 스티로폼 박스라도 좋습니다. 상추 한 잎이라도 내 손으로 길러 식탁에 올려보세요. 식량 주권의 시작입니다.

- **2 단계: '살림가' 되기 - 보이지 않는 연결 찾기**

- **이웃 자원 지도 그리기:** 우리 옆집에는 누가 살까요? "301 호 할머니는 옛날이야기를 잘하셔", "502 호 청년은 컴퓨터를 잘 고쳐." 이웃이 가진 재능(Talent)을 관찰해보세요.
- **연결의 오지랖 부리기:** 남는 반찬을 들고 벨을 눌러보세요. "혹시 이거 드실래요?"라는 작은 용기가 닫힌 문을 엽니다. 관계를 연결하는 당신이 바로 큐레이터입니다.

- **3 단계: '장르마스터' 되기 - 가치를 기록하기**

- **살림 가계부 쓰기:** 수입/지출만 적지 마세요. 오늘 내가 줄인 탄소(텀블러 사용, 걷기), 내가 도운 이웃에 대한 기록을 남기세요. 이것이 훗날 당신의 **SCI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 **감사 쿠폰 발행:**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화폐 대신 '설거지 쿠폰', '안마 쿠폰'을 주고받아 보세요. 돈 없이도 가치가 교환되는 경제를 작게나마 체험할 수 있습니다.

3. 함께 실천: 우리 동네를 '살림셀'로 만드는 조직화 기술

혼자서는 살림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음 맞는 이웃을 모아 '**사람 셀(Cell)**'부터 지으십시오.

- **먼저 손 내밀기:**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배려와 도움을 먼저 제공합니다. 급할 때 아이를 봐주거나, 아플 때 약을 사다 줄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축적해 보세요.
- **반상회 대신 '포트럭 파티(Potluck Party)':** 딱딱한 회의는 그만!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나눠 먹는 파티를 여십시오. 밥상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살림의 대화가 싹틔습니다.

- **디지털 공론장을 '나눔 장터'로:** 아파트 단독방을 민원 창구로만 쓰지 말고, "안 쓰는 물건 나눠요", "드릴 빌려드립니다"와 같은 공유 경제의 장으로 바꾸십시오.

독자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국가가, 혹은 누군가가 멋진 살림셀을 지어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아파트 베란다에서, 옆집 문 앞 비좁은 복도에서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아끼고, 먼저 나누는 순간, 당신은 이미 **'살림셀'의 주인**입니다.

[용어 해설]

1. 핵심 철학 및 가치 관련

- **살림로직(Salim Logic):** 지배, 성장, 경쟁 중심의 머니로직에서 벗어나 순환, 공존, 자원의 에코로직을 접목하여 살림, 풍요, 윤리를 추구하는 대전환된 가치 체계입니다.
- **ESGG (Ethical Sustainable Global Good):** 지구적 윤리관과 지속 가능한 삶을 통해 지구적 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문명 표준 지표입니다.
- **살림자본주의 (Salim Capitalism):** 지구와 이웃을 살리는 윤리적 행위가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새로운 경제 체제입니다.

2. 새로운 인류 및 역량 관련

- **살림가 (Salimist):** 머니로직의 지배에서 벗어나 생존 주권을 회복하고, 자신과 주변의 생명을 살리는 일상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인류 모델입니다.
- **장르마스터 (Genre Master):** 자신만의 고유한 달란트와 살림의 실천이 결합하여 독특한 삶의 양식(장르)을 만들고, 이것이 지구적 선에 이바지하여 한 분야의 경지에 이른 상태를 뜻합니다.
- **SERA:** 살림가가 갖춰야 할 4 가지 핵심 내면 역량으로 스토리(Story), 공감(Empathy), 회복탄력성(Resilience), 성취(Achievement)의 약자입니다.

3. 주거 및 사회 구조 관련

- **살림셀 (Salim Cell):** 국가 시스템이 멈춰도 자체적인 에너지와 식량 생산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생존 주권 구역이자 문명의 생명 엔진입니다.
- **The 3 Basics (3 대 기초):** 살림셀을 구성하는 세 가지 물리적/문화적 토대입니다.
- **제로 베이직 (Zero Basic):** 필수 자원을 자급자족하여 기초 생존 비용을 0 에 가깝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 **어반 베이직 (Urban Basic):** 첨단 기술을 통해 공간 제약 없이 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누리는 환경입니다.
- **컬처 베이직 (Culture Basic):** 이웃 간 돌봄과 관계를 통해 정신적 풍요를 제공하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4. 노동 및 경제 지표 관련

- **Deep Job (가치 노동):** AI 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노동으로, 개인의 장르가 투영되어 윤리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명으로서의 일자리입니다.
- **Shallow Job (얕은 노동):** AI 와 자동화에 의해 기계의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하여 자아실현과 생존 주권이 상실된 영혼 없는 노동을 뜻합니다.
- **살림트로피 (Salim Trophy):** 보이지 않는 윤리적 가치를 정량화하여 토큰 증권(STO) 형태로 발행한 최종 자산입니다.
- **SCI (Salim Contribution Index):** 살림기여지수. 탄소 감축 및 사회적 돌봄 활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지표입니다.
- **살림바 (Salim Bar):** 살림셀 내에서 창출된 신뢰와 돌봄의 가치를 측정하여 자산으로 치환해 주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치 인증 바우처입니다.
- **MCI (Mini Carbon Initiative):** 개인과 마을 단위의 미세한 탄소 감축 활동을 측정하고 인증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